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주도 전통민가를 통해 본 섬유작품 연구

- 색채 및 조형을 중심으로-

공 예 학 부

(섬유예술전공)

손 성 아

2 0 0 2

제주도 전통민가를 통해 본 섬유작품 연구

- 색채 및 조형을 중심으로-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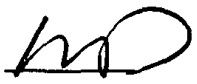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공예학부(섬유예술전공) 손 성 아

손성아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박 애 정

審査委員 이 양 섭

이 성 순 

임 영 애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목 차

논문 개요 viii

Ⅰ. 서론 1

A. 연구 목적 1

B. 연구 내용 2

C. 연구 방법 2

Ⅱ. 자연색체계(NCS)와 색채조화 4

A. NCS의 특성 4

B. 색채 조화론과 색채 지리학 8

C. NCS에서의 색채조화 17

Ⅲ. 제주도 가옥의 특징 20

A. 제주도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 20

B. 제주도 전통민가의 특징 21

C. 제주도 전통민가의 조형연구 23

Ⅳ. 색채 및 작품분석 28

A. NCS와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28

1. 제주도 전통민가 색채 분석 28

2. NCS에서의 제주도 전통민가 색채 38

B. 작품제작 및 분석 45

1. 작품제작 45

2. 작품분석 47

Ⅴ. 결론 63

참고문헌 65

ABSTRACT 67

그 림 목 차

그림 1. 『제주 초가(1800년대의 제주시』 26
그림 2. 『제주지붕』 26
그림 3. 『성읍 조일훈가옥』 26
그림 4. 『성읍 고평오가옥』 26
그림 5. 『성읍 이영숙가옥』 27
그림 6. 『성읍 한봉일가옥』 27
그림 7. 『성읍 고상은가옥』 27
그림 8. 『제주 돌담』 27
그림 9.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30
그림 10.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31
그림 11.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32
그림 12.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33
그림 13.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34
그림 14.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35
그림 15.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36
그림 16.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37
그림 17. 『제주도 전통민가 지붕의 색채 팔레트』 39
그림 18.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 지붕의 색채 범위』 39
그림 19. 『제주도 전통민가 외벽의 색채 팔레트』 40

그림 20.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 외벽의 색채 범위』 40
그림 21. 『제주도 전통민가 재료의 색채 팔레트』 41
그림 22.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 재료의 색채 범위』 41
그림 23.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팔레트』 44
그림 24.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범위』 44

표 목 차

표 1. 『자연의 색채 분포』 19

표 2.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 지붕의 색채』 39

표 3.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 외벽의 색채』 40

표 4.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 재료의 색채』 41

작 품 목 차

작품 Ⅰ.『자연 속으로』 47

작품 Ⅱ.『공간』 51

작품 Ⅲ.『우리 것을 찾아서』 54

작품 Ⅳ.『삶의 공간』 57

작품 Ⅴ.『자연의 향기』 60

논문 개요

인간의 지각과정에서 색채는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은 수많은 색채 환경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깊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우리는 색채로 진단하고 색채로 치료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근년 특히 이 부문이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현대에도 색채로 치유하고 색채로 인생을 전환시키는 일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빛, 환경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NCS는 색채의 내재적 속성을 명확하게 도식화하고 일관성 있게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색채의 정확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색채는 그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므로 색채 활용에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나라마다 문화와 지역성에 따라 독특한 색채문화가 생성되어 그 문화와 자연환경에 맞는 고유의 색채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 색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유한 자연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형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에 따라 독특한 색채 문화가 형성되어 고유한 색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유색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대자연의 혜택을 순응하는 자세로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순수한 미를 창출한 제주 고유의 민속 문화를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와 형태로 재창출하려는 연구이다. 제주도의 문화적 전통은 한국적 전통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으므로 향토 문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전통 문화를 반영한 섬유 작품을 표현하고자 한다. 조형원리에 의해 색채와 형태의 조형성을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인간, 빛, 환경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인접색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NCS를 근거로 색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역색은 자연발생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다른 칼라팔레트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의 고유한 색채를 찾는 일은 중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를 NCS에 적용시켜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지형상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전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초가의 '새'와 지붕의 격자형의 새끼줄 형태, 자연재료로 만들어진 민가의 외벽, 민가를 둘러싸고 있는 담 등은 지형상의 특수성과 전통적 특징을 반영한 형태이다.

다섯째,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상과 형태로 전통 문화를 반영한 섬유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제주도 특유의 색상에서 채도 대비에 의한 강조, 깊이감과 생동적 이미지의 색채 효과, 반복과 변화에 의한 통일감, 다양한 질감의 변화에 의한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빛, 환경의 관계성을 NCS로 제시하고 고유한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특성을 고찰하여 색, 형태, 질감, 공간감의 조형원리에 의해 고유색과 형태가 반영한 섬유 작품을 표현하였다.

주관적인 색채 선호에 따른 색채의 적용에서 벗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색채디자인과 인간, 빛, 환경의 관계성 연구, 고유색과 전통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Ⅰ. 서 론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빛, 환경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자연색체계(Natural Color System)는 지각 경험에 기초하여 색채의 내재적 속성을 도식화하고 일관성 있게 표시할 수 있어 색채의 관계성 검토와 적용이 가능하다. 색채는 그 지역의 문화를 나타내므로 자연 환경과 문화를 통해 고유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에서도 독특한 자연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지리적 환경과 화산 활동에 의한 지형상의 특수성으로 제주도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인 전통민가의 색채와 조형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문화적 전통을 반영한 섬유 작품을 표현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을 하고자 한다.

A.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제주도의 고유한 문화인 전통민가의 색채를 NCS로 분석하고 독특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고찰하여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섬유 작품을 표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B.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와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한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와 인접색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NCS와 색채 상호간의 조화를 고려하는 색채조화론, 그리고 자연계의 색채조화를 살펴보고, 옛 제주의 민속 경관이 잘 유지되어 있는 제주 유일의 민속 마을인 성읍 마을의 민가 형태를 고찰한다. 제주도 전통민가를 색, 형태, 공간의 조형원리에 의해 분석한다.

C.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조사와 작품 표현 및 작품 분석을 기본 도구로 한다.

본 연구의 표현 대상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대자연에 순응하여 지형상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만든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와 조형이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주 유일의 민속 마을이며 제주 중요 민속 자료인 성읍 마을의 가옥을 목적추출하여 민가 색채와 조형성을 살펴본다.

표현 방법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와 조형을 기본으로 한다. NCS의 색채 조화를 기본으로, 민가에서 보여지는 색을 추출하여 NCS로 환산하고 색채 특성을 알아본다. 또, 제주도 전통민가의 형태를 관찰하여 지붕에서 보여지는 밧줄의 사각 형태의 모티브와 내벽·외벽의 조형성, 각각의 재료에서 보여지는 질감 등을 표현한다. NCS로 도식화한 색을 작품에 적용하고 민가 형태와 민가에서 보여지는 모티브를 반복하여 배치한다. 표현방법의 소재로는 모사, 마사, 합성사, 지사를 사용하여 각

재료들의 제직으로 형태미와 색채를 표현한다. 제주도 가옥의 색채는 천연재료의 색채가 그대로 건축물에 반영되므로 제주도의 천연재료 색채의 사용으로 깊이감과 생동감 있는 섬유표현을 하고 채도 대비에 의한 강조를 표현한다. 실을 섞어서 직조함으로써 색상 혼합에 의한 시각효과를 표현한다.

분석방법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와 형태의 조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색, 형태, 질감, 공간감의 조형원리에 의해 분석한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와 형태의 조형적 특성에 의해 채도 대비에 의한 공간감, 사각 형태의 반복과 변화에 의한 통일감, 질감의 대비에 의한 생동감, 그리고 색상 혼합에 의한 시각효과가 잘 표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Ⅱ. 자연색체계(NCS)와 색채조화

A. NCS의 특성

독일의 생리학자인 헤링(Ewald Hering)이 1874년에 색채를 현상학적이고 상대적으로 연구하여 색의 속성에 관한 체계적인 분류를 하였고, 그 후 1878년 요한슨(Thyggre Johanson)이 헤링의 색채이론에 대한 해석을 소개함으로써 색채 지각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었다. 그는 이를 자연색체계(Natural Color System)라고 하였고 이러한 기반 위에 헤셀그린(Seven Hesselgren)은 1952년 색채도해(Color Atlas)를 제작하였다. 그 후 헤링의 독창적인 이론에 근거한 새로운 NCS가 스웨덴 색채센터의 설립 회장인 하드(Anders Hard)에 의해 소개되어 색채계획을 위한 NCS를 발표하였다. 1972년 스웨덴 표준협회(SIS)는 이를 채택하였고 1979년에는 SIS-NCS 색채도해를 발간하여 공인을 받음으로써 NCS가 나오게 되었다.[1]

NCS는 독일의 생리학자인 헤링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계량 심리학적 실험으로 이루어 졌다. 요한슨 박사에 의해서 헤링의 이론이 도입된 이후 시작되어 색지각의 기본적 속성들을 판정하는 동시에 이들 속성들을 이론체계에 의해서 조직화한다는 두 가지 목표로서 행해졌다.[2]

NCS는 자연의 색채감정을 환경색채의 계획에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틀이다. 과거의 물리학적 기초를 토대로 하여 빛의 파장을 본다고 생각했던 연구와는 달리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것으로 파장에

---

[1] Tom porter, Byon Mikellides(1976). *Color for Architecture* (New York : Van Nostand reinhoid) , p. 108.

[2] 박요한(1989). 「색채조형」 (서울: 미진사), p. 110.

의해 전달되는 경험적인 내용을 본다고 하는 것이다. 색채에 대한 의사 전달, 체계화 그리고 심리적 결과를 쉽게 했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가지며 6가지 기본색(White, Black, Red, Yellow, Blue. Green)에 의거하여 지각되는 성질에 따라 색채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3]

6가지 기본 색채들의 다양한 관계성은 색환(Color Circle), 색삼각형(Color Triangle), 색입체(Color Solid)로 표시 가능하며 색상은 특정 색채 속성의 비율로 표시하는 견지에서 색상환에 표시하고 검정색도(S), 하얀색도(W), 유채색도(C) 사이의 관계성은 색삼각형에 표시한다.

NCS는 색채와 인간이 분리되지 않은 상관관계 속에서 색채를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며 현상학에 기초하여 인접색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상대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체계는 미래 환경 색채 계획의 요구에 적합한 색채 시스템이며 올바른 색채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색채체계의 질서 있는 색의 배열은 조화로운 색조합의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색의 재현 및 표기를 쉽게 한다. 모든 분야의 색채계획시 색채 자료 수집 분석단계, 색채 선호도 조사단계, 제품진단 분석단계 전과정에서 색채측정자료의 표시방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 표시방식이 색채특성을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색채체계는 색채측정방법과 연관된 정량적 기준에 근거하여 인간이 색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른 감성적 측면의 연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실제 색채계획시의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NCS는 인간, 빛, 환경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과학적이면서도 혁신적인

---

[3] 한국실내디자인학회(2000). 『실내건축을 위한 색채디자인』 (서울: 기문당), p. 17.

색채체계로서 평가되어지고 있다.[4]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먼셀 체계와 비교해 보면 NCS는 다분히 기계론적이고 절대적이었던 기존 색체계와는 구별되는 유기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을 지닌 체계로 간주된다. NCS는 관계성, 다양성, 상대성의 특성을 지니며, 인간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NCS의 특징은 색채를 색채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내고 있어 우리는 보다 다양한 색채경험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 NCS는 색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특징적인 현상들을 정리하고 표기하기 위한 체계이다. 사람들은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을 구별하여 색채를 볼 수 없으며, 색상, 색조를 동시에 총체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색상, 뉘앙스의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는 NCS는 배색이나 색채계획시에 적용이 용이하다. NCS는 대상색의 검정색도의 비율, 유채색도의 비율, 색상을 동시에 나타내 줌으로써 어떤 한 색채가 어떠한 이차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표기법이다. NCS Notation에 의한 1750개의 샘플이 만들어져 있으며, color atlas에 배열되어 있다. NCS는 사람들이 NCS를 활용할 때 색채자극에 대한 물리적 또는 생리학적인 속성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색을 지각할 때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을 구별하여 보지 않고 색상과 색조를 동시에 총체적으로 지각하므로 색채, 뉘앙스의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는 NCS는 배색이나 색채계획시 적용이 용이하다. 색채의 내재적 속성을 명확하게 도식화하고 일관성 있게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색채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상황과 관찰자에 따른 상대적인 색채 감각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색채의 관계성 검토와 색채의 정확한 적용이 가능하

[4]한국실내디자인학회(2000). 앞글, p. 18.

다. 자연물이 내재되었을 때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였다는 의미로 자연색체계라고 한다.

NCS는 인간, 빛, 환경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과학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색채체계로 색채 지각 변수에 따른 관찰자의 반응을 통계적으로 적용하여 인간과 색채, 환경과의 연관성을 높인 색체계이다. 관계성, 다양성, 상대성의 특징을 지니며 지각 경험에 기초한 현상학적 입장에서 색채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B. 색채 조화론과 색채 지리학

1. 색채 조화론

색을 질서 있게, 목적에 알맞고, 그의 구실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색채 상호간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조화에는 통일과 변화가 필요하다. 통일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효과는 부드럽지만 자극적인 면에서 정적이고 약간 따분하게 되기 쉽고, 변화의 조건이 너무 크면 동적이기는 하지만 혼란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통일과 변화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 두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진 상태를 질서라고 말한다. 따라서 조화란 하나의 질서라 할 수 있다. 조화는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며, 색채의 생리적, 심리적인 작용을 충분히 연구하는 것으로도 목적에 적합한 색채를 선택할 수 있다.[5]

색채에서의 조화는 배색을 통해 기능적인 면과 미적 측면을 만족시킬수 있고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도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색채를 다루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어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배색을 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색채조화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색채사용을 위한 연구를 해왔다. 대표적인 몇 사람으로 슈브럴(M.E.Chevreul), 이텐(Johannes Itten), 먼셀(AlbertHenry Munsell), 오스트발트(Wilhelm Ostwald), 비렌(Faber Birren), 아른하임(Rudolf Arnhein), 져드(D.B.Judd) 등을 들 수 있으며, 그들이 제시한 조화론이 오늘날까지 색채조화 원리의 바탕이 되고 있다.

---

[5]하용득(1989). 「한국의 전통색과 조형심리」(서울: 명지) , p. 120.

색을 배색할 때 색상의 조화 뿐만 아니라 명도와 채도의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조화의 올바른 계획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색채조화는 주변의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하므로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성을 중시하여 공간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환경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둘째, 자연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색조 개념을 중심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자연은 같은 사물이라도 빛의 양이나 각도, 거리, 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색채의 감정 개념까지 포함한 색조 개념으로 계획하는 것은 자연의 감정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전체는 부분의 상호작용에 의존함과 동시에 그들의 결합에 의해 부분을 통제한다. 따라서 조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전체로 보고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로 생각할 때, 색채조화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6]

색채조화에 관해서는 르네상스시대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정성적(定性的)인 취급으로부터 시작되며, 색채 조화론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게 된 것은 합성 화학에 의한 색조의 풍부한 발전과 색채학에 의한 등감각차의 색입체의 완성을 본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또 색채의 정량화가 1931년경 추구되어 처음으로 정량적(定量的)으로 색채조화를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7]

괴테(Johann Wolfgang Goethe)는 "눈은 색을 보는 즉시 활동을 일으키며, 필연적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다른 하나의 색을 발생하게 하는 성

---

[6]한국실내디자인학회(2000). 앞글, p. 21.

[7]박도양(1997). 「실용색채학」 (서울: 반도출판사), p. 77.

격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긴 새로운 색과 원래 주어진 색은 함께 색환 전체를 둘러싼다."고 하고 좋은 색채의 조화는 색상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람포드(Ramford)는 1797년 "몇 개의 색(색광)을 혼합하여 백색(무색광)이 된다면 그들의 색은 조화되고 있다."는 가설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그가 물리학자로서 분산광에 대해 전문적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8]

이들은 모두 색채의 조화를 정량적이라기보다는 정성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진정한 체계화를 취급하지 못하였다. 색채 조화론의 객관적인 체계화를 꾀하고 오늘날과 같은 조화론의 기초를 구축한 것은 슈브럴(M.E. Chevreul) 이후이다.

슈브럴은 오늘날 색채 조화론의 기초를 세웠고 그의 저서 『색채의 조화와 대조의 원리』에서 12색상과 12단계의 순도로 되어있는 색상환, 즉 색의 삼속성 개념을 도입한 색상환에 의해서 색채의 조화를 유사한 조화와 대비의 조화로 나누고 정량적 색채 조화론을 제시하였다.

독일의 예술가이자 미술 교육자인 이텐은 "구성적 색채 이론에는 경험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색채 효과의 원리가 채택되지만, 예술에 있어서는 어떠한 계산에 의해 계획된 구도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의 저서 『색채의 예술(*The Art of Color*, 1961)』 서문에서 조화에 대해 "주관적인 색채조화에 관한 경험과 실험은 조화 혹은 부조화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였다.[9] 또한 그는 "사람들이 색채조화라고 말할 경우, 그것은 두 색 내지 그 이상의 색들의 관련 효과의 가치평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각자의 주관된 배색에 있어서 경험과 실험은 조화와 부조화에 판

---

[8] Johannes Itten(1985). 『색채의 예술』 김수석(역) (서울: 지구문화사), p. 26.

[9] Kuehni, Rolf G.(1997). *Color, N.Y* (John Wiley & Sons, Inc.), p. 144.

단을 두고 개별적인 상이함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10] 그리고 "조화는 균형이다.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색채는 그들의 혼합 결과가 중립적인 회색이 돌 때 조화롭다"라고 하였다.[11]

먼셀은 세 가지 척도, 즉 색상·명도·채도에 기초한 색채 질서 체계를 발전시켰다. 색채균형은 조화로운 색채 선택뿐만 아니라 색채가 적용되는 면적과도 관계한다. 그는 색채조화를 색채질서를 위한 또 다른 항목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색채조화에 의한 질서는 또 다른 질서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대략적인 조화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채색의 조화에서는 평균명도가 N5가 될 때 조화로운 배색이 된다. 단색상의 조화에서는 채도는 같으나 명도가 다른 색채의 배색, 명도는 같으나 채도가 다른 색채의 배색, 명도와 채도가 같이 달라지지만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색채들의 배색을 선택하면 조화롭다. 보색의 조화에서는 중간채도의 보색을 같은 넓이로 배색할 경우, 중간 명도로 명도는 같으나 채도가 다른 보색을 배색할 경우에는 저채도는 넓게, 고채도는 좁게 배색한다. 채도는 같으나 명도가 다른 보색을 배색할 경우, 명도단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변하도록 배색한다. 명도와 채도가 모두 다른 보색을 배색할 경우에도 명도의 단계가 일정한 간격으로 변하도록 배색한다. 다색의 조화에서는 한색이 고명도이고 다른 한색이 저명도일 경우, 세 번째 색은 두 색의 중간 명도가 되도록 배색, 색상·명도·채도가 다른 색채들을 배색할 경우 색채가 그라데이션을 이루도록 배색한다. 색상이 다른 색채를 배색할 경우 명도와 채도를 같도록 배색하면 조화롭다."

오스트발트는 "조화는 질서이다."라고 정의하고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구성색간의 질서를 찾으려 하였다. 즉, 오스트발트 색입체에서 규칙

---

[10] Johannes Itten(1985). 앞글, p. 23.

[11] Rolf G. Kuehn (1997). *Color, N.Y* (John Wiley & Sons, Inc.), p. 149.

적으로 선택한 배색은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규칙관계는 색입체 안에서 구체적인 법칙으로 나타나고 있다.[12] 그는 "색과 색간은 있어서 어떤 규칙적인, 즉 질서 있는 관계가 성립되는 색채군의 경우, 그것은 쾌적감을 주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가 결핍되었을 경우 그 색채 효과에 대하여는 불쾌감을 주거나 내지는 무관심하게 만든다. 쾌적한 효과를 주는 색채군을 칭하여 조화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조화는 질서이다'란 근본원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색채조화에 대해 논술하고 있다.[13] 무채색의 조화를 얻기 위해서는 무채색 단계 속에서 같은 간격의 색채를 선택해 나열하거나 일정한 간격의 회색 단계를 선택하여 배색하면 된다. 유채색에서의 조화를 얻기 위해서 색입체의 구조에 근거한 몇 개의 원리가 제시될 수 있다. 등백계열의 조화는 단일 색상면에서 동일한 양의 백색을 가지는 일정한 간격으로 선택하여 배색하면 조화된다는 것이다. 등흑계열의 조화는 단색 색삼각형내에서 동일한 양의 흑색을 가지는 색채를 일정한 간격으로 선택하여 배색함으로써 조화를 얻는 것이다. 등순계열의 조화는 단색 삼각형내에서 순도가 같은 색채로 수직선상에 있는 색채를 일정 간격으로 선택하여 배색해서 얻을 수 있는 조화이다. 이 외에도 단색 삼각형내에서 등흑색, 등백색계열의 조화를 조합하여 배색해서 얻을 수 있는 조화인 등색상의 조화와 등가색환의 조화가 있다. 보색 마름모의 조화는 색입체의 단면이 보색관계에 있으며, 보색 마름모꼴에서 서로 수평으로 마주보고 기호가 같은 색을 선택하여 배색하면 등가색환 보색조화라 하고, 축을 가로질러 횡단하는 색들의 배색은 사횡단 보색조화라 한다. 여기에 일부 변형시킨 보색 아닌 마름모의 조화가 있다.

---

[12] 한국실내디자인학회(2000). 앞글, p. 25.

[13] Johannes Itten(1985). 앞글, p. 27.

비렌은 "미는 인간의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 속에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색지각이 인간 의식의 속성에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색채 구성의 배색조화 이론을 발전시켰다. 시각적-심리학적인 순수색(color)과 하양(white)과 검정(black)이라는 세 가지를 삼각형의 꼭지점에 둠으로써 오스트발트의 색채체계 이론을 수용하였다. 헤링의 색삼각형에 근거한 오스트발트의 색채체계가 시각적-심리학적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창안이라고 주장하는 비렌은 오스트발트의 조화론을 실용화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비렌의 조화이론은 색삼각형의 연속된 선상에 위치한 색들을 조합하면, 그 색들 사이에는 공통된 시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다는 것이다. 1차 요소는 color, white, black으로 고정되어 있고 2차 요소는 두개의 1차 요소가 합칠 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원의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는 톤(tone)으로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1차, 2차 요소와 tone의 요소를 7개의 원으로 표시하고 그것 중에서 특정한 한 개의 요소를 정하면 그것과 연결되는 선상에 위치하는 두 개의 요소들을 근거로 한 색들은 서로 조화된다. 즉, 어느 방향이든지 하나의 선상에 놓이는 세 개의 색채요소 간에는 조화할 수 있는 공통적 속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조화된다는 것이다.[14]

아른하임은 색채조화를 음악에 비유하여 화음과 불협화음의 원리를 기초로 색채조화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색채의 배색에 있어서도 조화와 부조화 사이에 명백한 경계선이 있지 않으며 불협화음의 조화를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감성, 경이로움, 변칙적인 놀라움, 신비함 등을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색상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화와 부

[14] 한국 실내디자인 학회(2000). 앞글, p. 27.

조화의 체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 색상 삼각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앙에는 2차색을 배치하고 2차색을 중심으로 그 양쪽에 3차색을 배치하여 12색으로 이루어진 색상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아른하임은 색상에 있어서 조화와 부조화의 원리를 이 색상 삼각형으로 설명한다. 즉, 색상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중심선을 긋고 이 중심선에 대칭을 이루는 두 색은 서로 공통된 속성을 지니므로 조화를 이루며, 비대칭을 이루는 두 색은 두 속성 간에 불균형이 내재되기 때문에 부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15]

미국의 색채학자 저드는 일반적인 색채조화의 네 가지의 원칙을 정립하였으며 이 원칙들은 새로운 원리들을 주장한 것보다는 종래의 조화론들이 전제로 하였던 원리들의 보편성을 정리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원리는 질서(order)의 원리, 친근성(familarity)의 원리, 동류성(similarity)의 원리, 명료성(unambiguity)의 원리이다.

지금까지 객관적인 색채조화에 관한 원리를 살펴보았다. 색채조화의 문제는 미적인 측면과 함께 사회적이고,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목적에 따라 계획되어야 하며, 나아가 인간 행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15] 박영순, 이현주(2000). 「색채와 디자인」 (서울: 교문사), p. 60.

2. 색채 지리학

색채는 지역적, 자연발생적인 지리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나라, 그 지방, 지역에 있어서의 자연발생적 혹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따른 칼라 팔레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 요소와 기후 등 자연요인은 색채 지각의 결정요소가 되며 지역성으로 특성화되는 사고방식에 의존한다. 자연의 빛 뿐 아니라 흙, 바위, 식물들은 색채의 질을 결정하며 그것을 지방색이라 부를 수 있다. 자연적 요소의 색채와 인공적 색채의 분석은 지역색으로 특성화된 정체성 색채의 지각으로 문화적 이해와 채광, 거리, 형태, 주변환경의 영향, 주변색과의 조화 등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지역 특유의 색을 보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다.

프랑스의 장 필립 랑클로(Jean Phillippe Lenclos)는 유럽의 각 지역에서 수집한 흙으로 만든 색채 팔레트를 제시하였는데, 그 색채들을 보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등 낮은 톤의 모든 색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 생산되는 대리석의 샘플을 보면 하양, 검정, 노랑, 초록, 주황, 빨강, 파랑, 보라색까지 돌이 지닌 색상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함을 볼 수 있다. 랑클로는 프랑스의 오래된 아름다운 거리의 색채가 그 토지의 기후, 풍토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시사하였다. 전통적으로 오래된 거리는 그 척도와 재질에 의해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주거와 환경 사이에는 확실한 시스템이 존재하고 정해진 양식에 의해 통일감이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실제로 유럽의 전통적인 거리를 보면 추상적인 색채회화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된다. 정리된 경관, 절제된 색채, 잘 배합된 색채의 대비는 그대로 색채 팔레트에 재현된다.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자

연재료에 의해 만들어진 길은 그 지방의 기후, 풍토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돌을 주체로 한 건축의 벽면색에 그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손으로 채색한 창틀이나 창호의 액센트 칼라도 지역성을 갖고 어떤 일정한 색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규제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부터 사용되어 온 자연재료를 배경으로 하여 그 기후, 풍토에 알맞은 감각으로 성숙된 것이다.[16]

색채 분석의 권위자인 랑클로의 색채 분석 방법은 현장 분석과 색채 구성 요소의 시각적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다. 랑클로는 건물 혹은 구조물의 색의 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요한 색이나 특징적인 색을 찾아낸다. 어느 도시나 마을의 색을 고려할 때 전체를 포착하는 방법과 상세한 요소에 주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떨어진 장소에서 본 색채는 균일하게 보이기 쉽고,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색은 실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 색이나 두 색 밖에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색깔도, 실제로는 몇 개의 건물이 자아내는 비례와 리듬, 빛과 그늘의 대조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일단 도시나 마을을 조사하면, 실로 다양한 색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건물의 색은 주위의 색에 많건 적건 영향 받고 있다.

각 지역의 환경에 대해 명백한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건축재료의 획일화로 인한 지역색이 상실되어 모든 도시는 동일한 색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색채 지리학은 지역을 위한 독특한 색채의 익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6] Akira Fujimoto(1994), 김기환(역), 「링크로의 색채디자인」, (서울: 국제), p. 27.

C. NCS에서의 색채조화

인간 본래의 터전이 자연이기에 인간의 삶은 자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의 미의식 또한 자연의 환경 속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17] 그러므로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 역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자연을 해석하고 자연이 갖는 미를 표현하는 조형적, 예술적 수단으로 개개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나은 승화된 새로운 미에서 그 완성를 초래한다.

미국의 자연과학자 루드(O .N. Rood)는 『현대색채학(1879)』에서 색채조화에 있어서 중요한 자연계의 법칙을 지적하고 있다.

"자연광 아래에서 관찰했던 색의 보이는 상태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수목의 잎과 풀잎은 일광이 닿는 부분은 밝은 노랑기미의 녹색으로, 그늘에서는 어두운 청색기미의 녹색으로 보인다. 빨간 꽃잎에 햇빛이 닿아 있는 부분은 밝은 황색기미의 빨강으로, 그늘 부분은 어두운 청색기미(자색)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인접하는 색상관계의 배색은 자연계의 법칙에 합치하는 듯한 관계, 즉 노랑(색상)에 가까운 색은 밝고, 먼 색의 색상은 어둡게 하는 듯한 관계의 배색은 인간이 가장 친숙해 있는 색채조화(color harmory)가 된다. 즉, 색상마다 고유의 각기 다른 명도를 갖고 있는 것은 자연계의 원리이고, 색채조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다."[18] 자연은 같은 사물이어도 빛의 양, 각도, 거리, 면적 등 주변의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나타내고 색채에 감정개념이 포함된다.

---

[17] 백기수(1979). 「미의 사색」 (서울: 서울대출판부), p. 95.
[18] 박필제, 백숙자(1999). 「색채학 입문」 (서울: 형설), p.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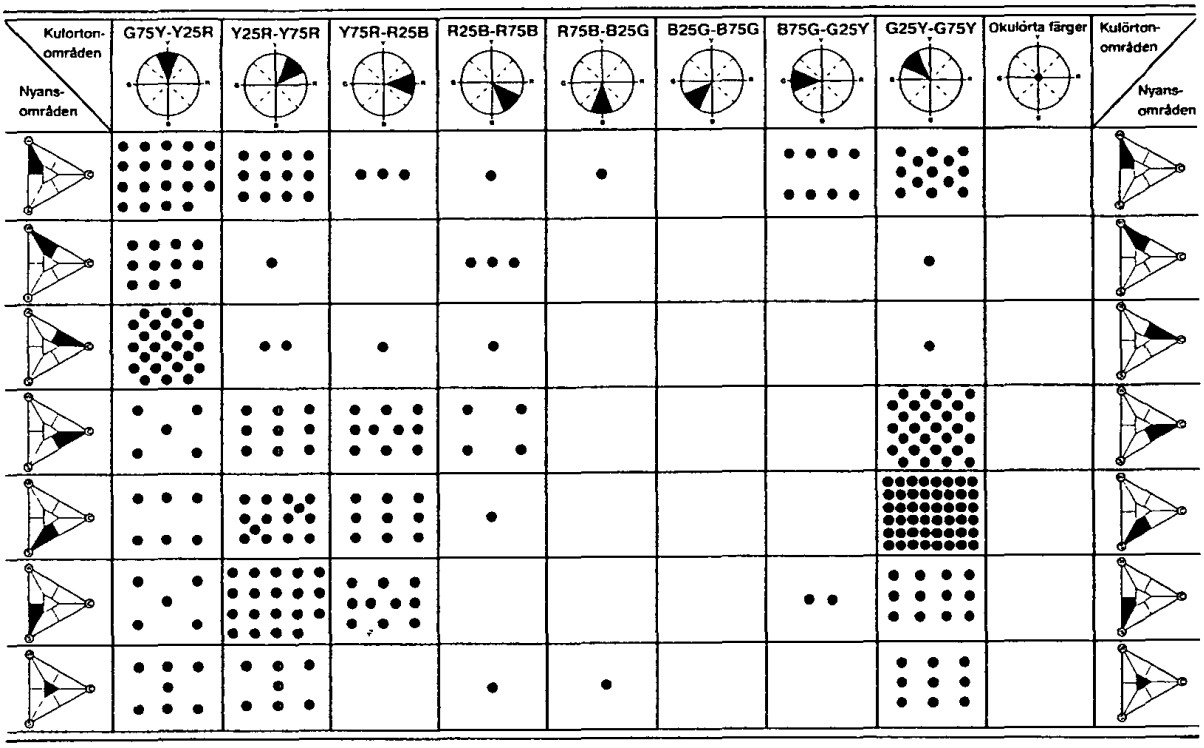
NCS에서 말하는 조화방법은 인간과 인간, 환경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다. NCS에서 강조하는 조화란 색채의 조화는 주변의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하므로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기보다는 직관적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자연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색조개념을 중시해야 하며 조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전체로 보아 각 변수들은 그 전체를 이루는 패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 환경을 이루는 색은 무심코 보면 단조로운 듯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볼수록 다양한 색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 환경을 이루는 색은 다채롭지만 인공적인 색채처럼 현란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며 대부분은 저채도이나 강한 색이라도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19] 자연물의 배색에는 보색대비가 많으며 채도대비와 면적대비가 적절히 활용되어 시각적으로 편안한 관계를 나타낸다. 먼 거리에서 보는 자연이 채도가 낮은 부드러운 유사색의 조화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보색대비를 이루는 경우에도 그래데이션 효과에 의해 그 대비 정도는 약하게 느껴진다.

---

[19] 박영순, 이현주(1998). 앞글, p. 104

표 1. 자연의 색채 분포



출처 : Karin Fridell Antre(1996). *Nature's colour palette* (stockholm:S.C.I.), pp. 16-17
내용 : 자연의 색은 주로 G-Y, Y-R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의 색은 주로 YR(Yellow-Red), GY(Green-Yellow)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색채가 YR 계열을 취하고 녹색의 경우라도 Y계열을 취하고 있다.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색은 무질서해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

Ⅲ. 제주도 가옥의 특징

A. 제주도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

제주도는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예로부터 돌과 바람이 많고, 토지는 척박하여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수 천년 동안 한반도로부터 고립되어 독자적인 생활 공간을 유지해 왔다.

삼국시대까지는 반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고려에 예속되어 간접통치를 받게 되었으며, 100여년 동안 몽고의 직접 지배를 받기도 하였다. 조선 초에는 중앙집권정책으로 독자성이 상실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파견된 탐관 오리들의 횡포와 착취가 심했으며 왜구의 침입도 많았다. 그리고, 해마다 풍수해와 흉년이 들어 생존하기 어려운 섬이었다. 제주도는 대륙문화와 해양문화를 받아들여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독특한 문화로 유지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한반도와는 다른 특이한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해상, 동지나해의 북쪽에 위치한 섬으로 중위도 지역의 남단에 치우쳐 있고 해로상 중국과 일본의 중간 위치에 있다. 그 크기는 장경 약 80km, 단경 약 40km인 타원형으로, 섬의 중앙부에는 높이 약 2000m의 한라산이 있는 순상화산이다.[20] 한라산 주위는 완만한 경사로 내려오면서 넓은 초원과 360여 개의 기생화산들이 산재해 있고 해안선은 단조로우나 아름다운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와 중국, 일본의 중간 지점에 있어서 대륙 문화와 해

[20] 이문원, 손인석(1984). 『제주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섬일까』 (서울: 춘광), p. 7.

양 문화를 다 받아들여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자연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토착문화는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와 상호 융합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보존할 수 있었다.

B. 제주도 전통민가의 특징

제주도는 지리적 환경과 화산 활동에 의한 지형상의 특수성으로 제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전통민가[21]란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선조들에 의해 지어져 오면서 다른 나라의 집들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일반 백성들의 집인 민가와 공경대부들의 제택을 뜻하며 한반도에서 한국인들 스스로가 이루어 온 고유한 양식의 민가와 제택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2]

제주도의 전통민가는 제주의 풍토, 기질, 생활 문화를 반영하여 육지와는 전혀 다른 양식이다. 1520년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는 "사람의 주거는 모두 띠(茅)로 엮어 매지 않고, 지붕에 나란히 펴서 쌓고, 긴 나무로 가로 눌러 맺는다. 기와집은 매우 드물고 양현(兩縣)의 관사도 역시 띠로 덮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23] 1601년 김상헌(金尙憲)의 『남차록(南蹉錄)』에는 "밭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돌담으로 두르고, 인가는 다 돌을 쌓아놓고 담을 만들어서 문 앞에 길을

---

[21] 민가란 백성의 집을 말하며 이는 궁궐, 관아, 사찰 등의 공적인 건축공간과는 다른 사적인 건축공간이다. (주남철(1999). 「한국의 전통민가」 (서울: 아르케), p. 15.))

[22] 주남철(1999). 「한국의 전통민가」 (서울: 아르케), p. 26.

[23] 김일진(1996). 「옛집에 담긴 생각」 (서울: 향토), p. 46.

만들며."라고 밝히고 있고 "제주도의 흙이 점액(粘液)이 없고 모래와 돌이 많아서 벽을 바르는데 알맞지 않고 기와도 육지에서 사온다"라고 적고 있다. 기와집을 짓기는 매우 힘들어서 일반 민가는 말할 것도 없고 관사까지도 '새'를 덮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지붕의 처마 끝에는 '새'를 덮어서 만든 풍채를 붙이는데, 보통 때는 채양처럼 들어올려 놓지만 비바람이 세차면 수직으로 내려서 집의 벽이나 문들이 풍우에 덜 젖도록 한다.[24] 담장은 어두운 회색의 현무암 돌담으로 이루어지고 새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려고 새로 꼬은 줄을 그물처럼 떠서 덮으며 이것으로도 모자랄 때에는 헌 그물을 덧씌우기도 한다.[25]

이와같이 제주도의 집들은 지붕을 낮게 하고, 돌벽을 쌓으며, 창문들을 널문으로 하고, 풍채를 다는 등 비바람이 세찬 제주도의 기후조건에 적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26]

제주도민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대자연의 혜택을 순응하는 자세로 순수한 미를 창출하고 제주 고유의 민속 문화를 형성하였다.

---

[24] 김일진(1996). 앞글, p. 48.
[25] 김광언(1988). 『한국의 주거민속집』 (서울: 민음사), p. 478.
[26] 김일진(1996). 앞글, p. 48.

C. 제주도 전통민가의 조형연구

제주도 전통민가는 지리적 여건과 자연조건의 영향으로 타지방과 다른 독특한 경관과 특이한 내용을 갖는다. 제주 유일의 민속 마을이며 제주 중요 민속 자료인 성읍 마을의 가옥을 통해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다.(그림 1, 2, 3, 4, 5, 6, 7, 8)

제주도의 민가는 육지와는 달리 집채의 수의 변화로 집의 간살이가 달라지는 까닭에 '외거리집', '두거리집', '세거리집'과 '네거리집'으로 나눈다. 다시 배치형태에 따라 '모로 앉은 형', '마주 앉은 형'으로 구분되며, 구성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형을 낳게 된다.

구들의 난방은 온돌로 하고, '상방'[27]과 부엌의 난방은 '봉덥'으로 해결하였다. 육지와 다른 점은 취사와 난방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공간에서 특색있는 것은 '상방'이다. '상방'은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거생활의 중심 공간의 기능과 손님 접대 등의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킨다. 육지의 '대청'과도 의미가 다르며, 오히려 근대적 의미의 거실과 유사하다. '봉덥'은 상방의 중앙에 땅을 파서 돌화로를 묻고 난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초가집에는 '상방'이 있고 방의 난방을 위해서 '굴묵'이 별도로 있으며 취사용 아궁이는 구들과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굴뚝이 없다. '굴묵'은 난방을 위하여 방 뒤쪽에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방밑에 일정한 넓이의 구멍을 내어 보리카락이나 쇠똥말린 것을 가득 집어 넣고 불을 떼서 서서히 타게 하므로서 위에 덮혀 있는 돌이 뜨거워져서 난방이 되도록 한다. 바람이 많고 비가 많아서 주추를 지상

---

[27] 바닥이 우물마루로 된 마루방으로, 마리, 삼방이라 부르기도 한다.(『제주도 민속자료』(제주도), p. 141.)

40~50cm쯤 높이 세워서 기둥 아랫부분이 썩지 않도록 한다. 특히 바깥쪽 주추는 높이 세우게 마련으로, 1m에 이르는 것도 적지 않다. 그리고 처마 밑에는 채양을 달아두었다가 비바람이 들이칠 때 이를 내려 막는다.[28]

제주도의 돌담은 어두운 회색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쌓는 방법에 따라 외담, 잣굽담, 배캐담의 세 종류로 나눈다. 외담은 적당한 크기의 돌을 차곡 차곡 쌓아올린 가장 보편적인 담이고 잣굽담은 먼저 잔돌을 어느 정도 깔고 난 다음 큰돌을 올린 담이다. 그리고 배캐담은 바닥에 큰돌을, 가운데에 잔돌을, 맨 위에 큰 돌을 서너 켜 올린 담이다. 이 담은 다른 두 담에 비해 매우 높고 더구나 위에 큰 돌이 얹혀서 우람한 느낌을 준다. 잣굽담의 축조 방식은 집터나 밭을 고를 때, 먼저 잔돌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생각된다.[29] 전면을 제외한 집 주위에 돌담을 둘러서 바람을 막는다. 벽장과 담 사이는 수장공간으로 이용한다.

제주도는 바람이 센 곳이므로 주위에 돌담을 쌓는 외에 지붕에는 반드시 새끼로 그물을 떠서 덮어야 한다. 지붕은 '새'라는 풀을 이용하여 엮어 이고 새끼를 꼬아 격자 꼴로 지붕에 덮고 있다. '새'로 지붕을 덮지만, 육지에서처럼 날개를 엮지 않고, 손으로 고루 펴서 덮는다. 따라서 '새'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려고 '새'로 꼬는 줄(새끼줄 비슷한 이 줄을 지붕줄이라 한다)을 그물처럼 떠서 덮는다. 또, 육지에서처럼 해마다 지붕을 다시 덮는 것이 아니라 '새'를 조금만 걷어 내어 몇 년간 계속 쌓아간다. 샛지붕은 첫해에는 노란 빛을 띠어서 보기 좋으나 이듬해부터 검어지기 시작하여 3년째는 완전히 검은 빛으로 바뀐다. 따라서,

---

[28] 김광언(1988). 앞글, p. 476.
[29] 김광언(1988). 앞글, p. 478.

묵은 '새'에서부터 새로 덮은 '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빛을 띤다. '새'를 잇고 나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각단을 그물처럼 떠서 덮는다. 각단은 '새'보다 짧은 풀(길이 40~60cm)로 거왕[30]에 잡아 매며 처마 가까이의 줄과 줄 사이를 꿰어 나가면서 옥가리[31]로 걸어서 바람이 불어도 뜨지 않도록 한다. 제주도의 집은 새와 억새로 지붕을 덮는데, 육지에서처럼 날개를 엮지 않고 뿌리가 용마루로 향하도록 하여 아래로부터 손으로 고루 펴서 덮어 나간다.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옛날에는 물기에 강한 노가리나무 등으로 가로 누르고 세로로 결구하여 고정하였으나, 근년에는 각단(새보다 짧은 풀)을 꼬아서 만든 굵은 줄을 그물처럼 떠서 격자 꼴로 지붕을 덮는다. 그리고 각단 줄의 끝부분은 처마 끝으로 돌아가며 고정시켜 놓은 거왕이라는 굵은 대나무에 잡아매어 바람이 불어도 뜨지 않게 한다.

제주도 전통민가는 비바람이 세찬 제주도의 기후조건과 지리적 여건에 적응하여 고유하고 독특한 조형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지형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고유 문화에 대한 연구와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

[30] 처마 끝으로 돌아가며 고정시켜 둔 왕대(김일진(1996).『옛집에 담긴 생각』(서울: 향토), p. 48.)

[31] 노가리 나무나 왕대(김광언(1988).『한국의 주거민속집』(서울: 민음사), p. 478.)

그림 1. 제주 초가

출처 대한건축사협회제주지부(1986). 「제주건축」 (제주 : 대한건축사 발행위원회), p. 20.

내용 : 1800년대의 제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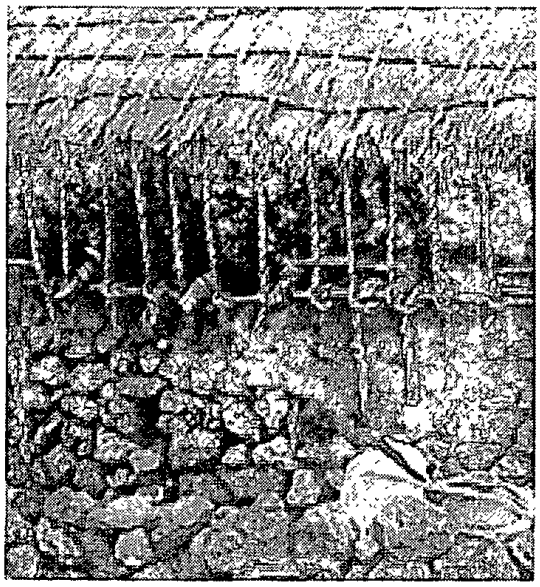


그림 2. 제주 지붕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제주지부(1986). 「제주건축」 (제주 . 대한건축사발행위원회), p. 21.

내용 : 밧줄을 처마끝 대나무에 고정하여 바람을 이겨내도록 한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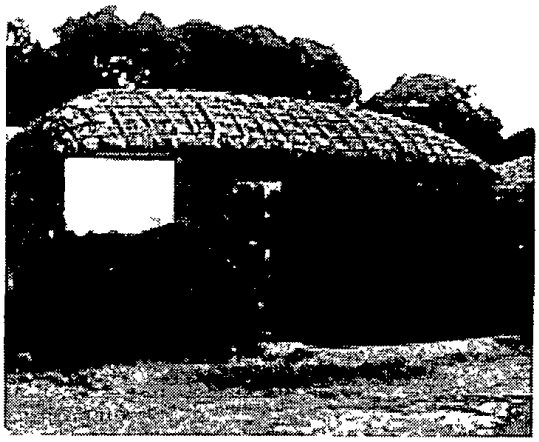


그림 3. 성읍 조일훈가옥

출처 : 주남철(1999) 「한국의 전통민가」 (서울 아르케), p. 507.

내용 : 중요민속자료 제 6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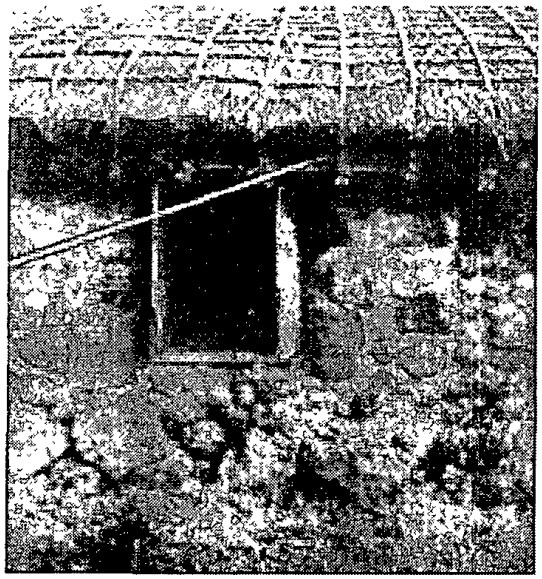


그림 4. 성읍 고평오가옥

출처 : 주남철(1999). 「한국의 전통민가」 (서울 · 아르케), p 511

내용 : 중요민속자료 제 6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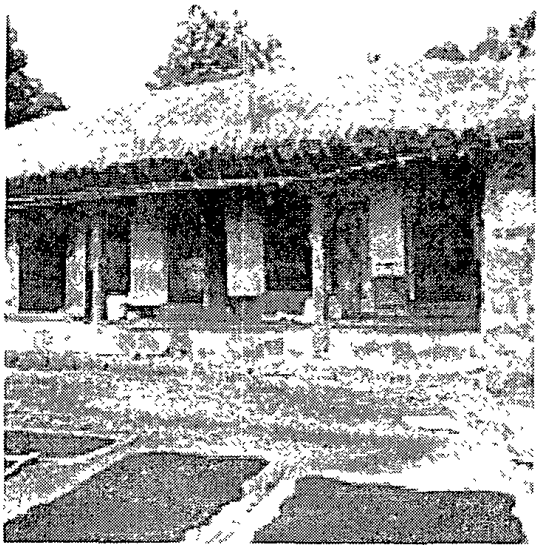


그림 5. 성읍 이영숙가옥

출처 : 주남철(1999) 「한국의 전통 민가」(서울 : 아르케) , p. 515.
내용 : 중요민속자료 제 7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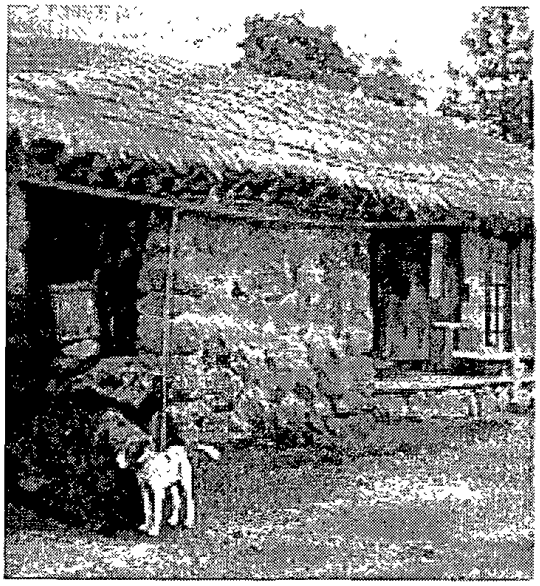


그림 6. 성읍 한봉일가옥

출처 : 김일진(1999). 「옛집에 담긴 생각」(서울 . 향토) , p 43.
내용 : 중요민속자료 제 71호

그림 7. 성읍 고상은가옥

출처 :주남철(1999). 「한국의 전통 민가」(서울 · 아르케) , p 522
내용 :중요민속자료 제 7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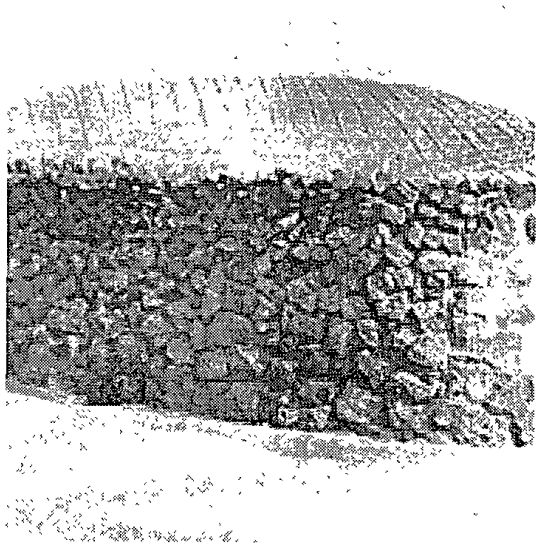


그림 8. 돌담

출처 . 김광언(1988). 「한국의 주거 민속집」(서울 : 민음사) , p. 465.
내용 성채처럼 돌담을 쌓아 바람을 이겨냄

Ⅳ. 색채 및 작품 분석

A. NCS와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1. 제주도 전통민가 색채 분석

색채는 지역적, 자연발생적인 지리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나라, 그 지방, 지역에 있어서의 자연발생적 혹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따른 칼라 팔레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 요소와 기후 등 자연요인은 색채 지각의 결정요소가 되며 지역성으로 특성화되는 사고방식에 의존한다. 색채는 그 지역의 문화를 나타내므로 자연환경과 문화를 통해 고유색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제주도의 전통민가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재료를 사용하므로 자연의 색과 관계가 깊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유한 문화에 대한 연구와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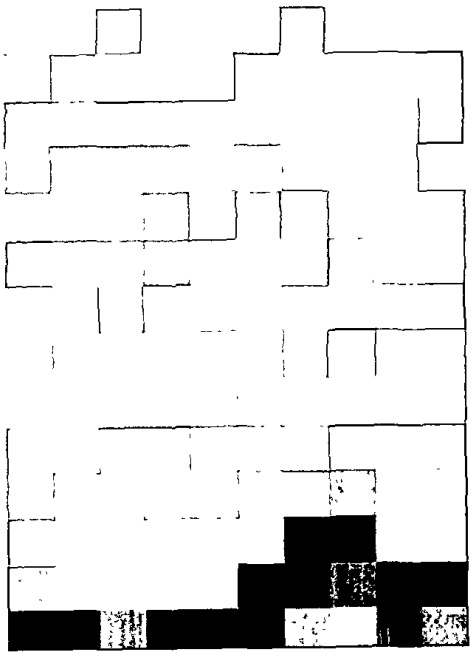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를 추출하기 위해 PANTONE COLOR로 색표를 채집하고, 색채를 잘 보여준다고 판단되는 거리에서 촬영하여 조사 사진을 photoshop에서 셀이 140, 30정도로 구성되도록 모자이크 처리한 후 색을 추출하였다(그림 9, 10, 11, 12, 13, 14, 15, 16).

제주도 민가의 지붕은 띠로 꼬은 새끼줄로 매었으며, 해마다 지붕을 다시 덮는 것이 아니라 '새'를 조금만 걷어 내어 몇 년간 계속 쌓아가기 때문에 묵은 '새'에서부터 새로 덮은 '새'에 이르기까지 색채 범위가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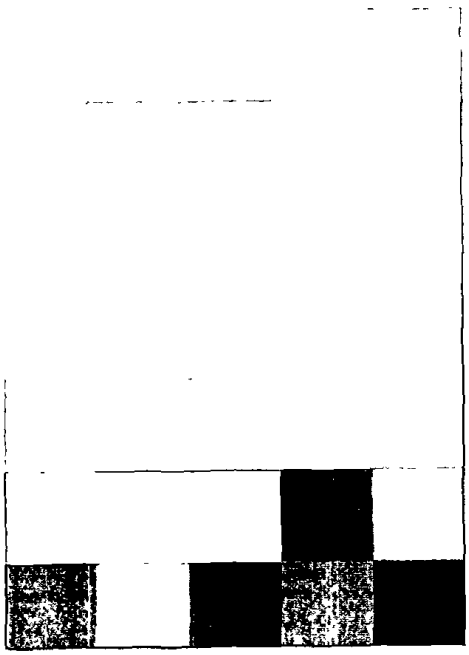
제주도 전통민가 외벽의 색채는 제주도 자연 재료 그 자체의 색을 나타낸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색으로, 어떤 재료를 주재료로 하는가에 따라 외벽색채가 달라진다. 흙으로만 되어 있는 외벽도 있고 흙과 억새, 그리고 현무암을 섞어서 만들기도 한다. 전통민가 외벽의 색채는 제주의 흙과 돌, 억새를 사용하여 천연 재료 색채가 그대로 건축물에 반영된다.

전통건축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천연재료 색채가 그대로 건축물에 반영된다. 흙이 암갈색, 갈색, 흑색토양인가에 따라 외벽색채가 달라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 저채도, 저명도의 색채를 형성한다. 담장을 이루는 암석은 거의 대부분이 현무암이고 주로 무채색이나 저채도의 넓은 색채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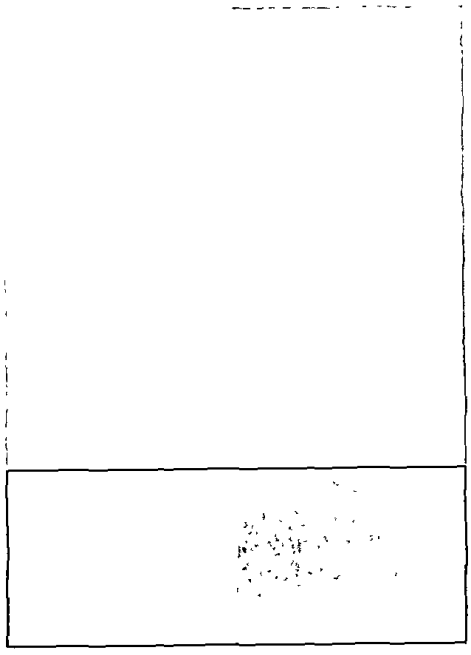
1. 제주도 전통민가 지붕



2. 색채 분석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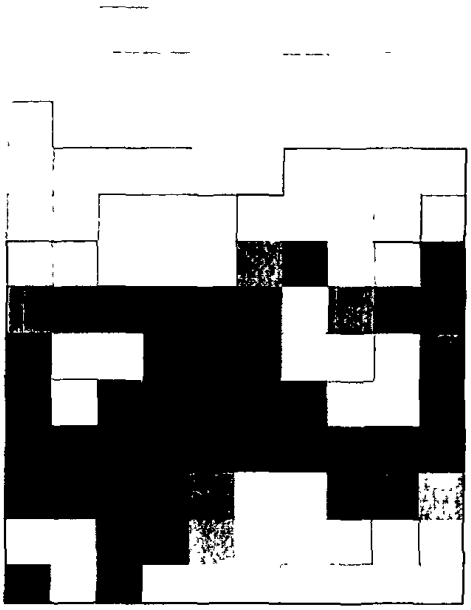
3. 색채 분석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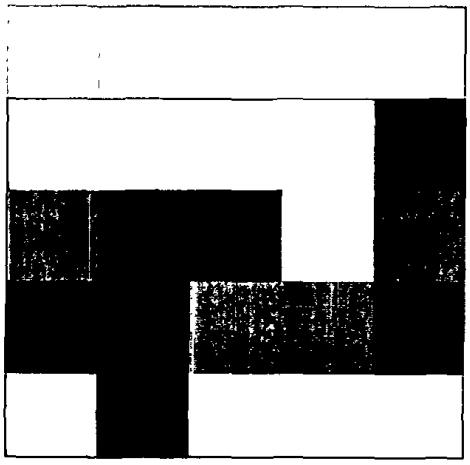
4. 최종 분석 단계

그림 9.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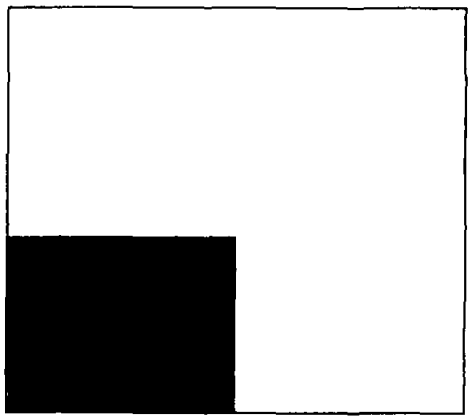
1. 제주도 전통민가의 지붕줄과 벽



2. 색채 분석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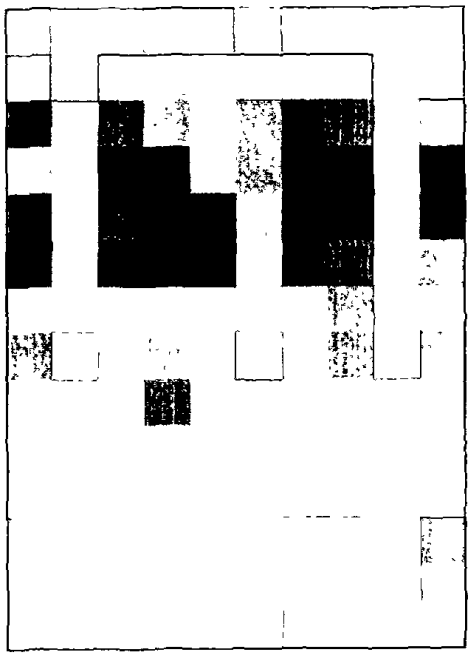
3. 색채 분석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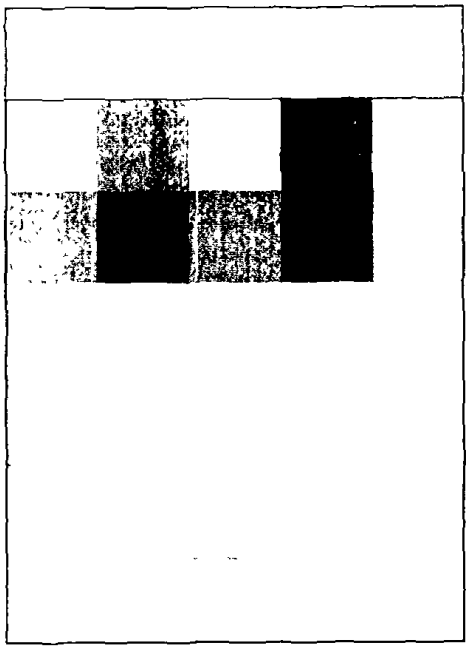
4. 최종 분석 단계

그림 10.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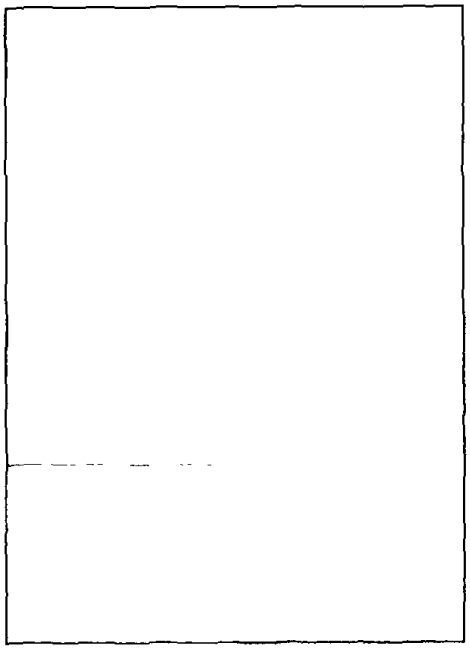
1. 제주도 전통민가의 묵은 지붕과 벽



2. 색채 분석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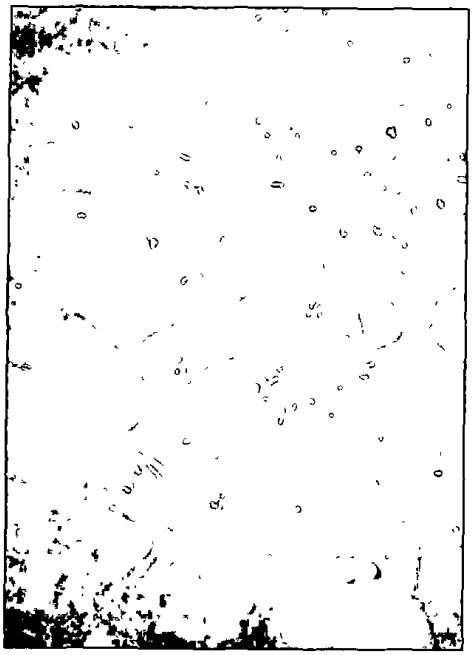


3. 색채 분석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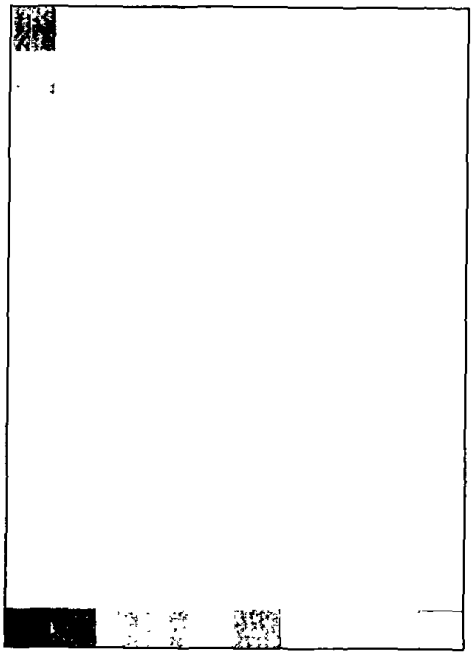


4. 최종 분석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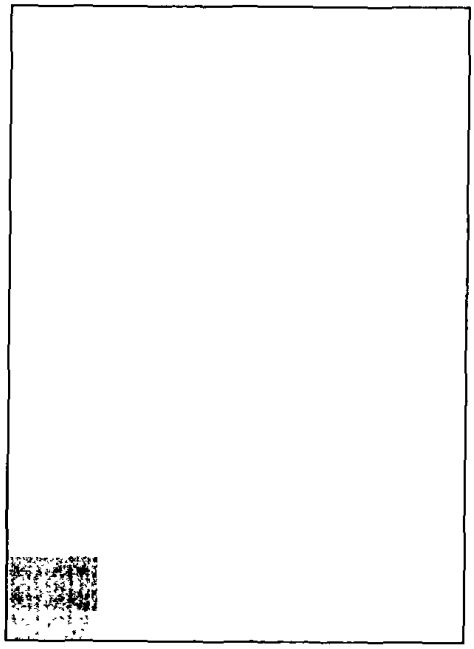
그림 11.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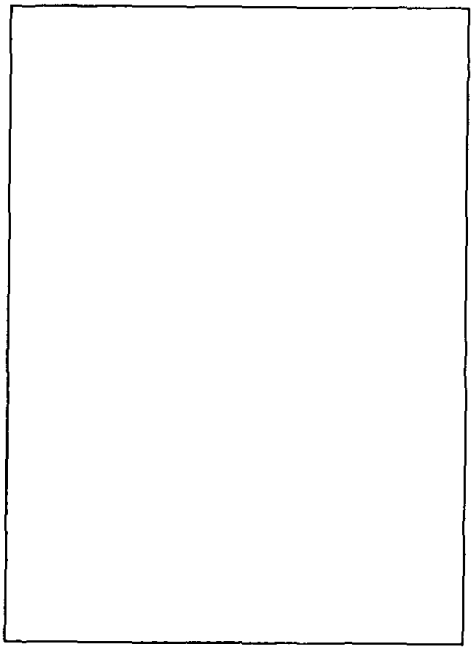
1. 제주도 전통민가의 외벽 (새 · 흙 · 돌)



2. 색채 분석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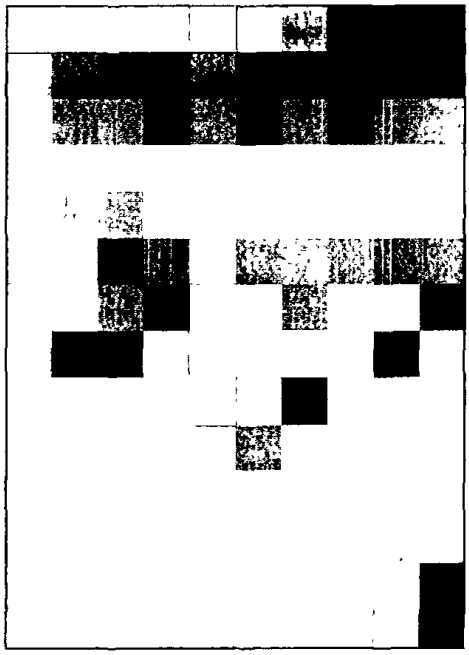
3. 색채 분석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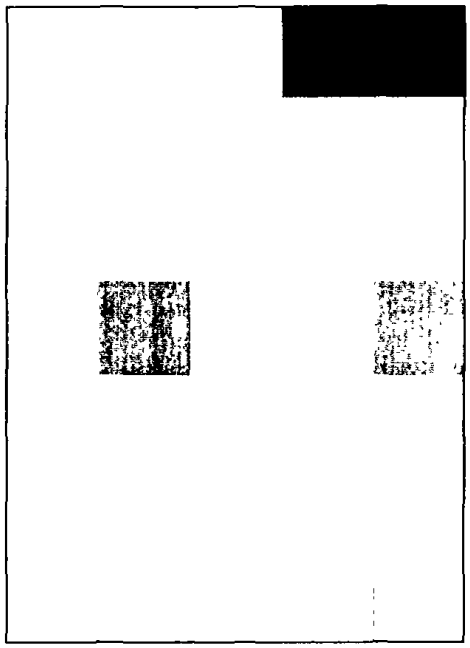
4. 최종 분석 단계

그림 12.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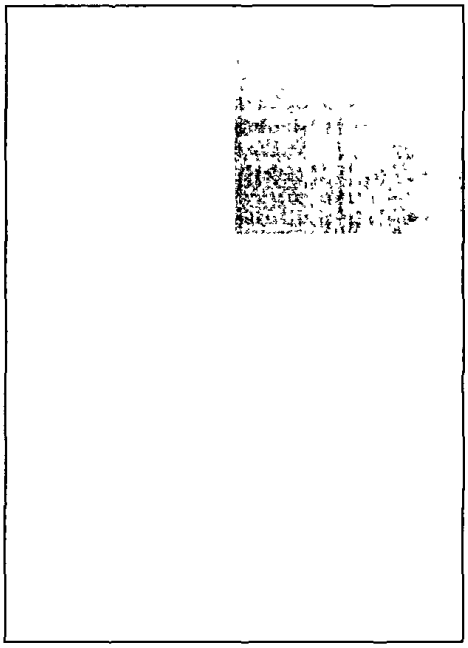
1. 제주도 전통민가의 각단과 외벽



2. 색채 분석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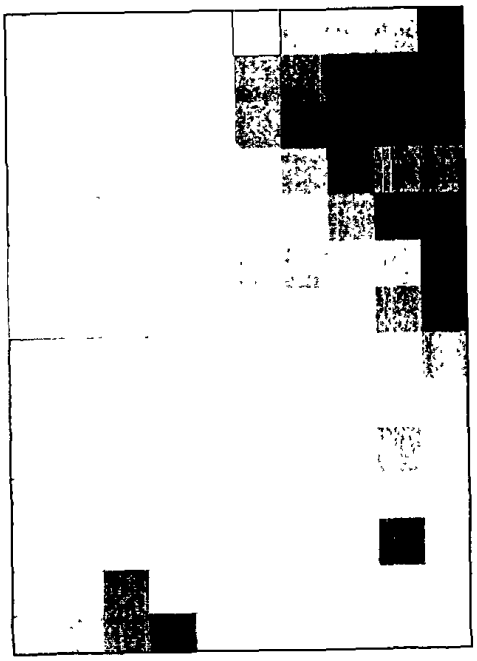
3. 색채 분석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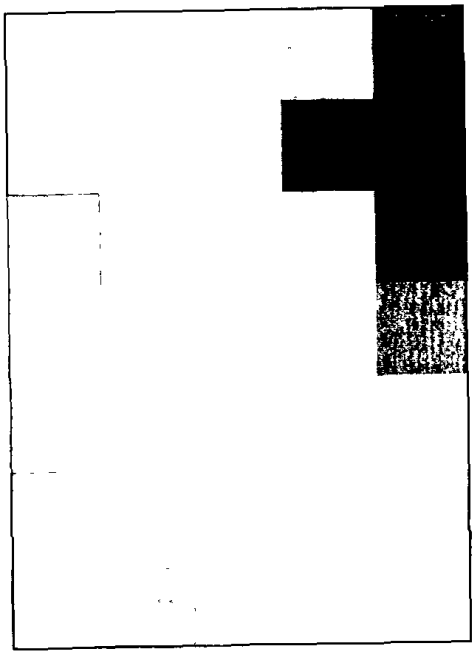
4. 최종 분석 단계

그림 13.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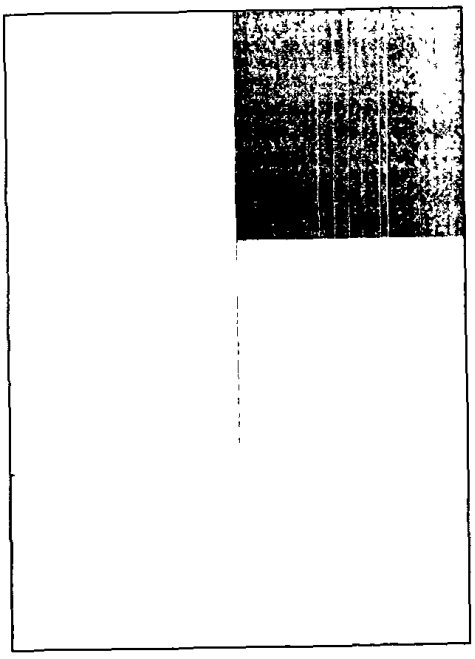
1. 제주도 전통민가의 외벽 (돌 · 흙)



2. 색채 분석 1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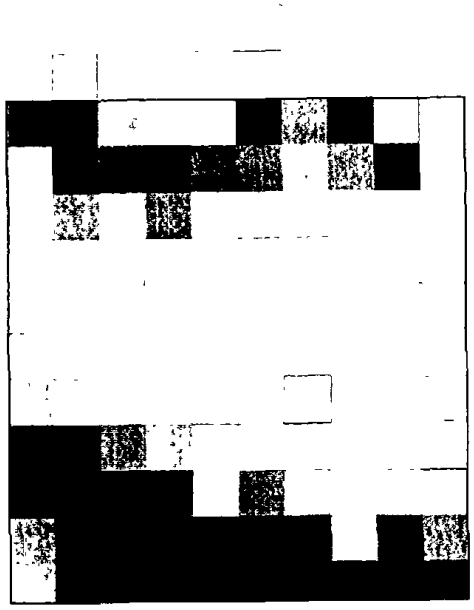
3. 색채 분석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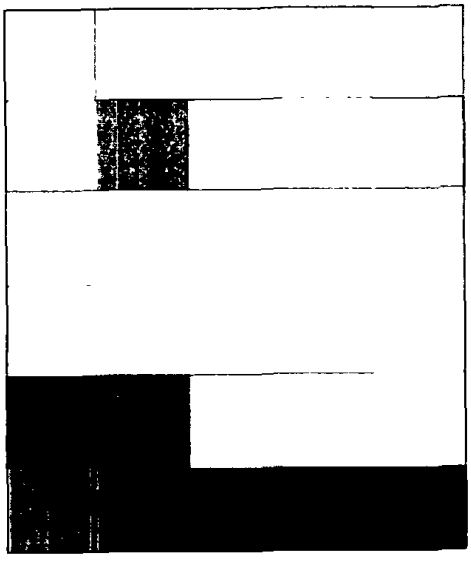
4. 최종 분석 단계

그림 14.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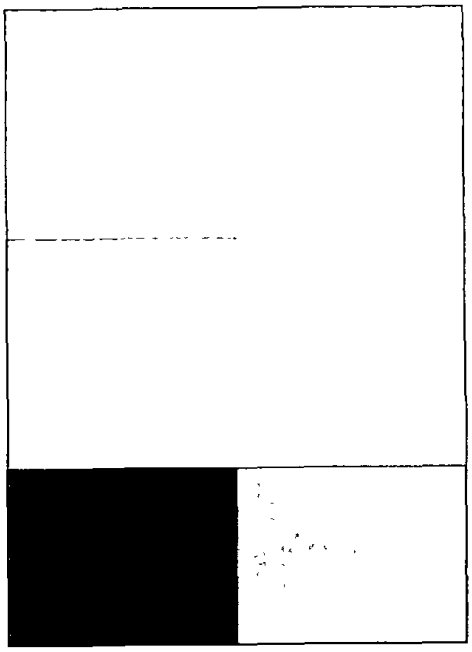
1. 제주도 전통민가의 지붕과 외벽



2. 색채 분석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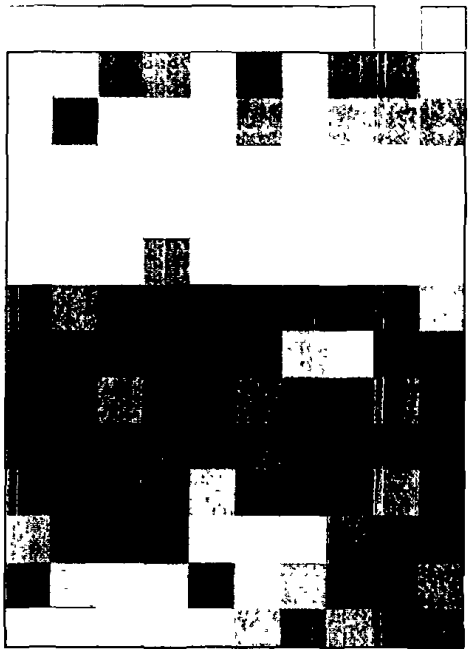
3. 색채 분석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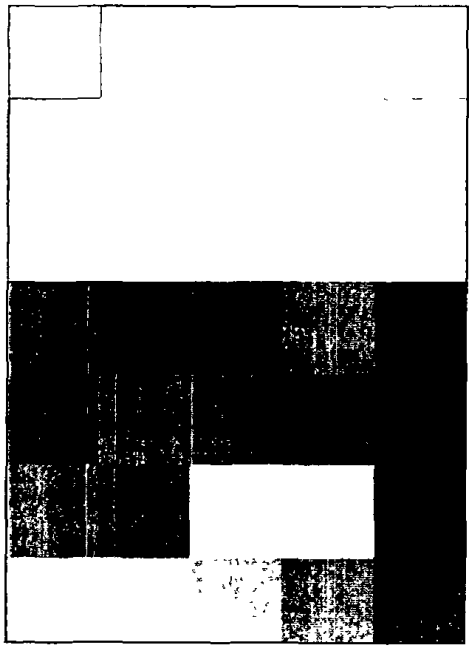
4. 최종 분석 단계

그림 15.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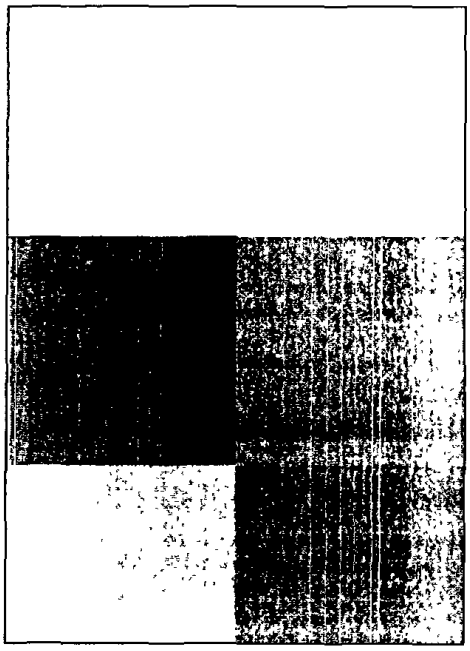
1. 제주도 전통민가의 벽과 담



2. 색채 분석 1단계



3. 색채 분석 2단계



4. 최종 분석 단계

그림 16.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분석

2. NCS에서의 제주도 전통민가 색채

지역의 색을 색표화하고 색채팔레트화하면 각각의 지방이 어떠한 개성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역의 자연소재를 측색하여 색채팔레트를 만드는 것은 환경색채계획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진다.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인접색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NCS는 색채계획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를 펜톤 COLOR로 색표 채집하고 NCS로 환산하여 객관화된 색을 지역의 색으로 추출한다. 다시 말해 지역의 물리적 색채 팔레트를 제작한다. 예로부터 사용되어 온 자연재를 배경으로 그 기후, 풍토에 맞는 감각이 반영된 색채를 추출하여 NCS로 환산한다. NCS atlas를 참고하여 명확하게 도식화하고 일관성 있게 표시하여 색채의 정확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지붕을 덮는 '새'는 몇 년이 된 묵은 '새'에서 새로 덮은 '새'까지 YR계열에서 넓은 색채 분포를 나타낸다. 외벽의 색채는 밝은 흙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명도의 YR계열이, 어두운 흙이나 현무암을 사용한 경우에는 저명도, 저채도의 분포를 나타낸다. 또 외벽의 색채를 형성하는 자연재료의 색채를 보면 YR계열의 저채도와 무채색의 넓은 분포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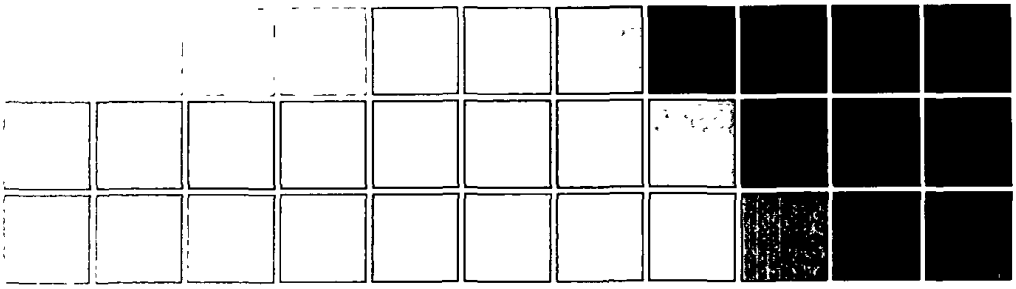


그림 17. 제주도 전통민가 지붕의 색채 팔레트

표 2.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 지붕의 색채

S0505-Y10R	S1005-Y20R	S6010-Y30R	S2005-Y70R
S1010-Y10R	S4020-Y20R	S1005-Y40R	S5020-Y70R
S3020-Y10R	S5005-Y20R	S2005-Y40R	S7005-G20Y
S4020-Y10R	S1005-Y30R	S1005-Y50R	S6010-G30Y
S6020-Y10R	S2005-Y30R	S2005-Y50R	S6005-G50Y
S7010-Y10R	S4020-Y30R	S1010-Y60R	S8005-G50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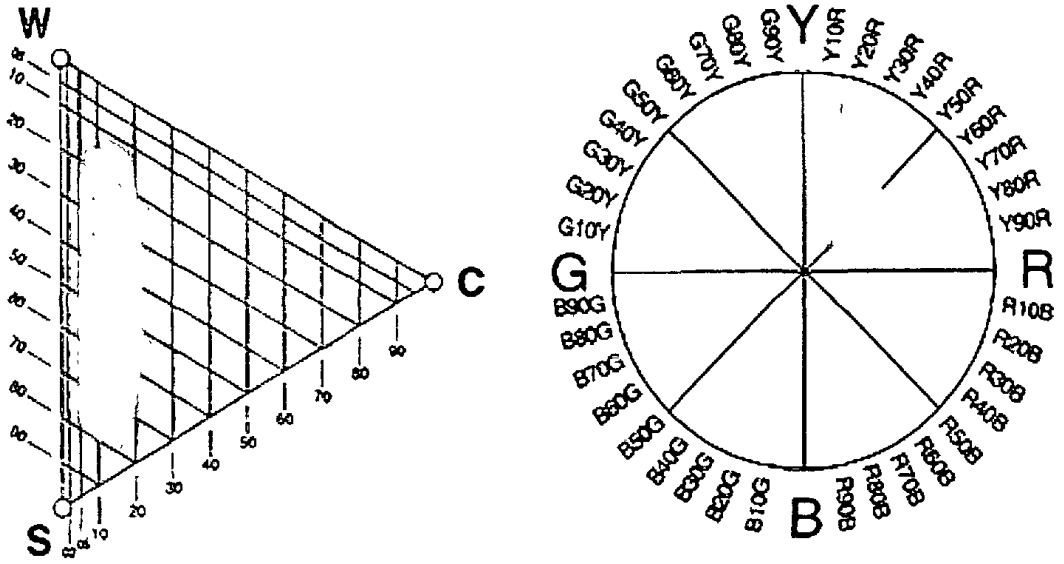


그림 18.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 지붕의 색채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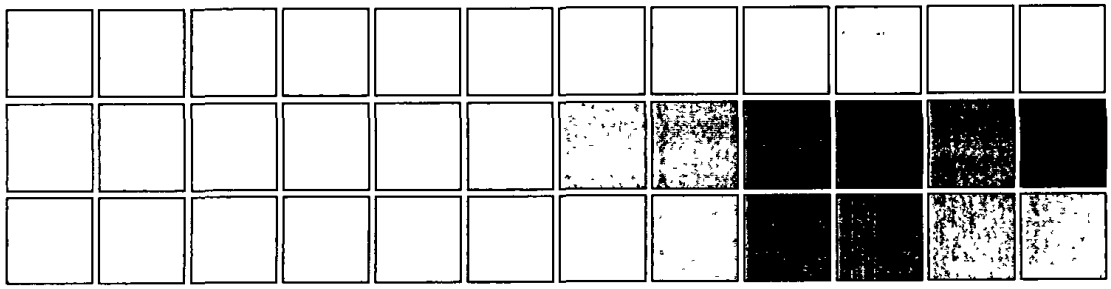


그림 19. 제주도 전통민가 외벽의 색채 팔레트

표 3.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 외벽의 색채

S3005-Y20R	S5020-Y40R	S7010-Y50R	S6010-Y70R
S4005-Y20R	S3005-Y50R	S2005-Y60R	S3010-Y80R
S8005-Y20R	S3010-Y50R	S3010-Y60R	S6010-G50Y
S4010-Y30R	S4010-Y50R	S6020-Y60R	S6010-G70Y
S2030-Y40R	S5010-Y50R	S2005-Y70R	S6005-G80Y
S3010-Y40R	S6010-Y50R	S4010-Y70R	S5005-B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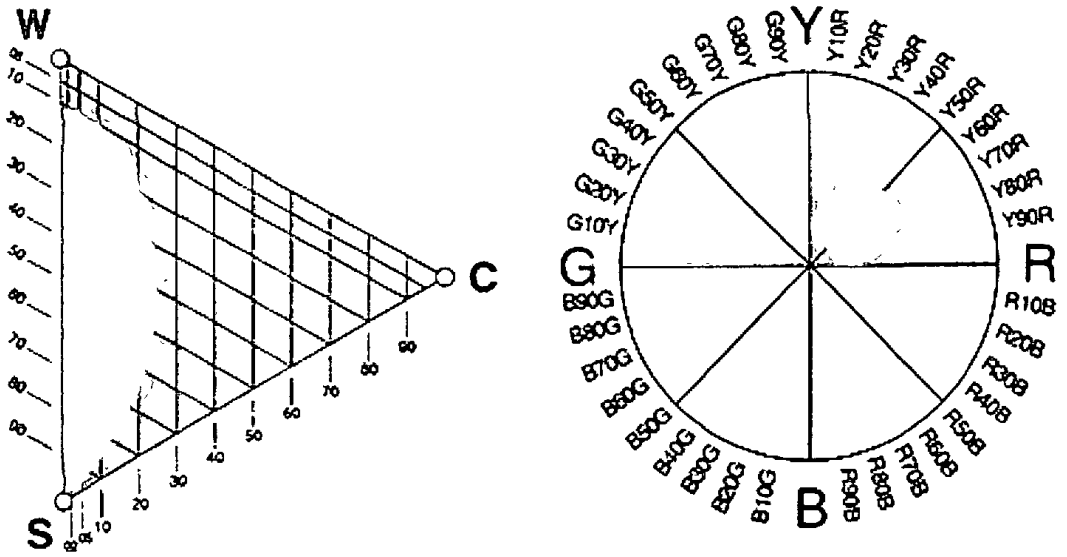


그림 20.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 외벽의 색채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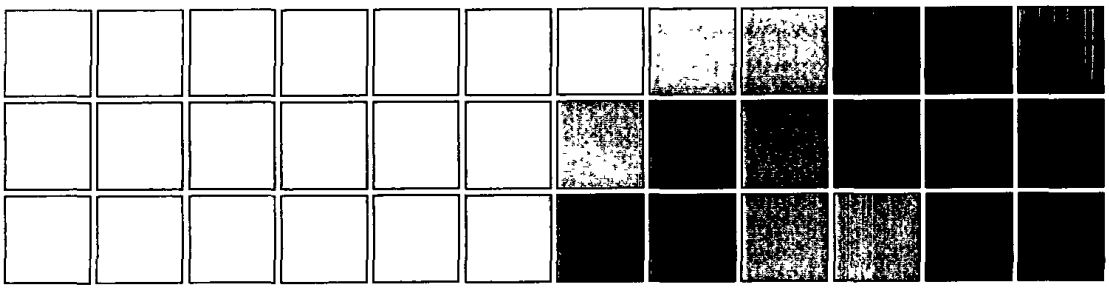


그림 21. 제주도 전통민가 재료의 색채 팔레트

표 4.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 재료의 색채

S2030-Y10R	S8010-Y30R	S2005-R10B	S5005-G20Y
S3020-Y10R	S8010-Y50R	S2005-R80B	S6005-G20Y
S3030-Y10R	S4020-Y60R	S6020-B10G	S3010-G70Y
S2020-Y20R	S2010-Y90R	S7010-B10G	S4005-G80Y
S2030-Y20R	S3010-Y90R	S4005-B20G	S5005-G80Y
S6010-Y30R	S4502-R	S7010-B90G	S4010-G90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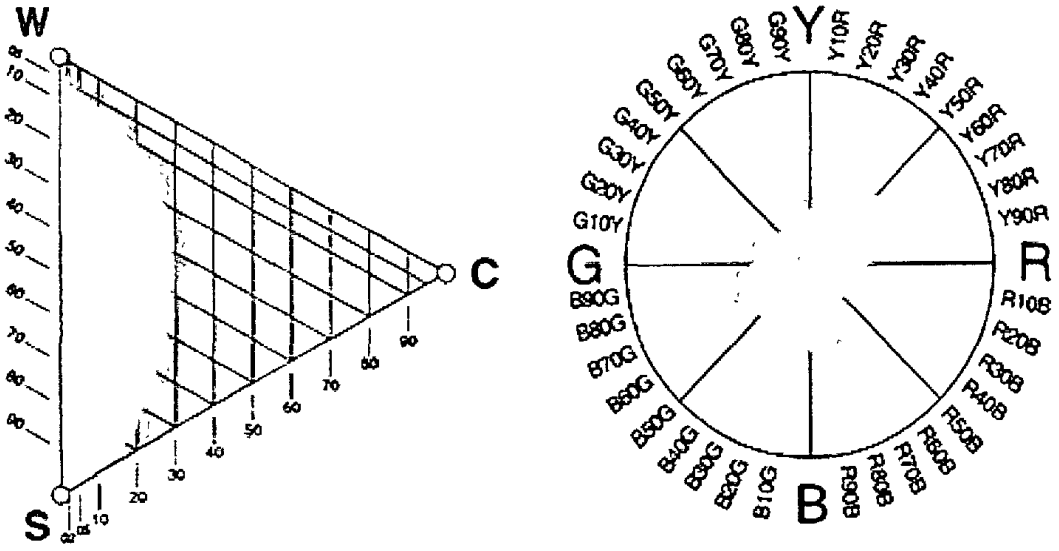


그림 22.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 재료의 색채범위

제주도 전통민가의 지붕의 색채는 그림 17처럼 YR계열에서 넓은 색채 분포를 나타낸다. NCS로 환산하면 표 2와 같고 그림 18과 같은 색채범위를 나타낸다. 지붕의 색채는 지붕을 덮는 '새'가 몇 년이 된 묵은 '새'에서 새로 덮은 '새'까지 다양하므로 전체적으로 YR계열에서 넓은 색채 분포를 갖는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외벽의 색채는 그림 19처럼 밝은 흙을 사용할 경우에는 고명도의 YR계열이, 어두운 흙이나 현무암을 사용한 경우에는 저명도, 저채도의 YR계열의 색채 분포를 나타낸다. NCS로 환산하면 표 3와 같고 그림 20과 같은 색채범위를 나타낸다.

제주도의 전통민가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재료를 사용하므로 자연의 색과 관계가 깊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다양한 종류의 흙과 돌등 자연재료의 색채는 자연의 빛과 더불어 색채의 질을 결정하므로 그 지역 특유의 색을 보존하게 한다. 자연재료의 색채를 보면 그림21과 같이 YR계열의 저채도와 무채색의 넓은 분포를 볼 수 있다. NCS로 환산하면 표 4와 같고 그림 22과 같은 색채범위를 나타낸다.

자연물의 배색은 채도가 낮은 부드러운 유사색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32]

[32] 박영순, 이현주(2000). 앞글, p. 60.

자연적 요소의 색채에 대한 분석은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색채의 지각으로 그 지역 특유의 색을 보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로 인해 고유한 문화를 만든 제주도의 전통민가의 색채는 그림 23과 같고 그림 24와 같은 색채범위를 나타낸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는 천연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과 잘 조화되고 대부분의 색상이 YR계열이며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와 무채색의 색채를 나타낸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유한 문화에 대한 연구와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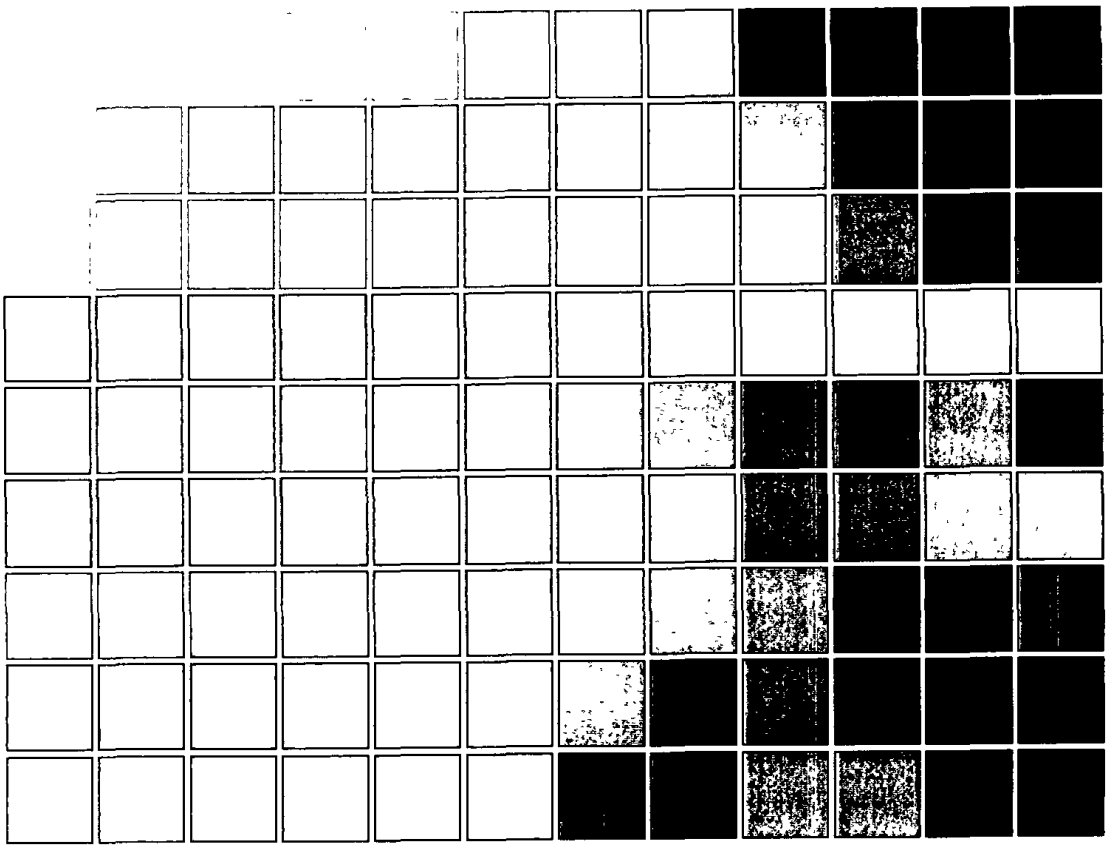


그림 23.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 팔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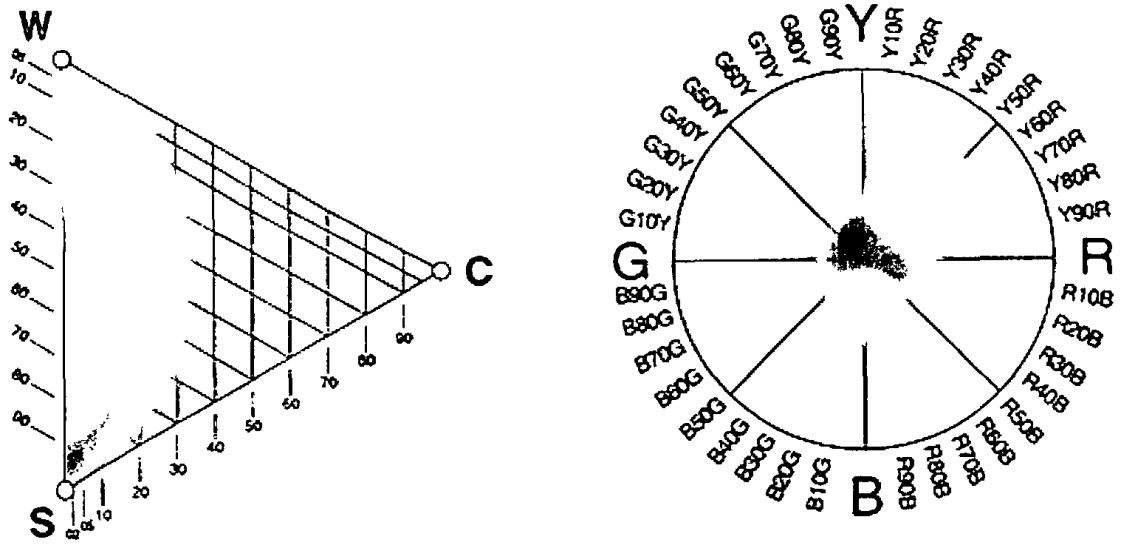


그림 24. NCS에 의한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범위

B. 작품제작 및 분석

1. 작품 제작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와 형태의 조형성을 응용하여 제주도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섬유 작품을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와 조형성을 고찰하여 색대비, 형태, 질감, 공간감이 있는 섬유 작품을 표현하고자 한다.

색채는 그 지역의 문화를 나타내므로 자연환경과 문화를 통해 고유색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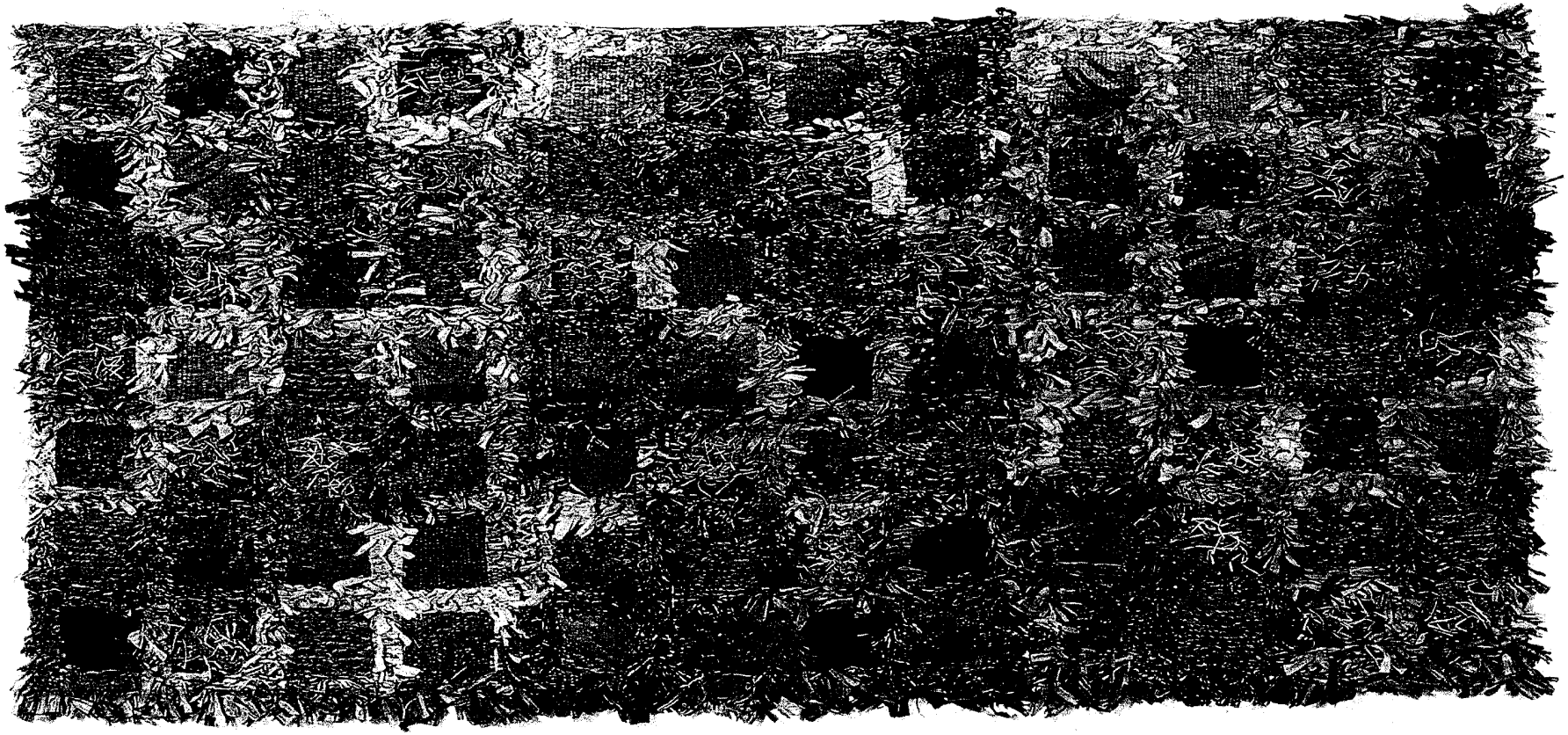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를 자연색체계(NCS)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주도의 토양에서 보여지는 YR계열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하고 추출된 색채를 비렌의 색채조화론의 TINT-TONE-SHADE-GRAY, TINT-TONE-BLACK의 이론으로 작품에 적용한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과 조형성을 바탕으로 색대비, 형태, 질감, 공간감이 있는 섬유작품을 표현한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형태를 관찰하여 지붕에서 보여지는 밧줄의 사각 형태에 의한 통일감과 재료의 질감 대비에 의한 생동감을 나타낸다. 제주도 전통민가 지붕에서 보여지는 사각 형태를 나열하여 반복과 변화에 의한 통일감을 표현하고, 민가의 재료에서 보여지는 초가, 밧줄, 돌의 질감 대비를 이용한 피스를 배치하여 생동감을 표현하고, 채도 대비에 의한 강조로 공간감을 나타낸다. 실을 섞어 직조함으로써 색의 시각적 혼합을 표현한다.

작품의 재료는 색상의 혼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모사, 그리고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마사와 지사, 폴리에스터사, 모사, 밧줄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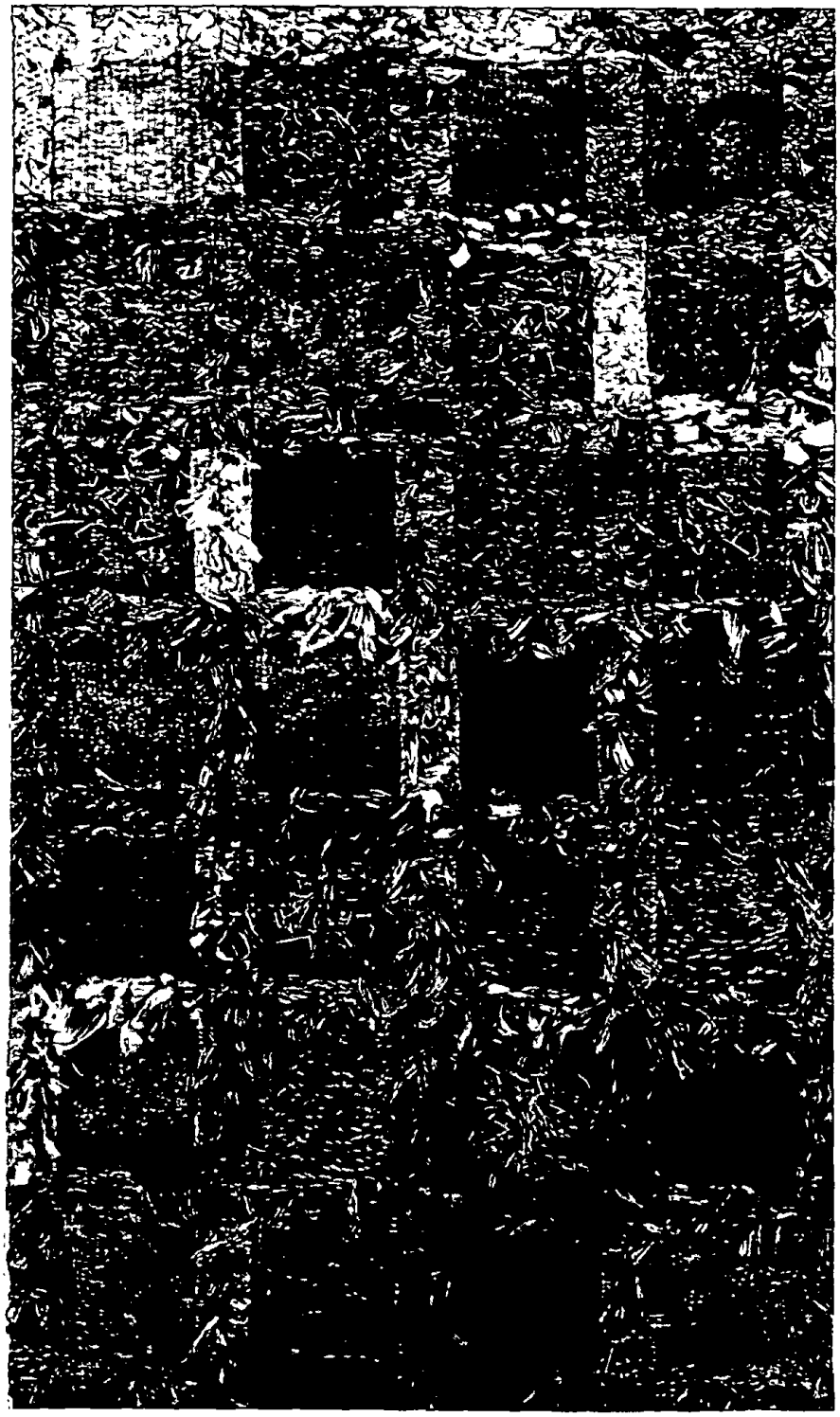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본 연구의 작품은 사각 형태의 반복을 통한 전체 형태와 평면과 부조로 제작한 각 피스의 조합으로 설치하였다.

작품을 제작한 후 제주도 민가의 조형적 특성에 의해 사각 형태의 반복과 변화에 의한 통일감, 질감의 대비에 의한 생동감, 그리고 채도 대비에 의한 공간감이 잘 표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2. 작품분석



작품 Ⅰ. 『자연 속으로』 (300×160cm)



작품 I의 한 부분

작품 I 의 세부

작품Ⅰ. 『자연 속으로』

가. 크기: 300×160cm

나. 재료: 모사, 지사

다. 기법: 평직, 파일직, 수막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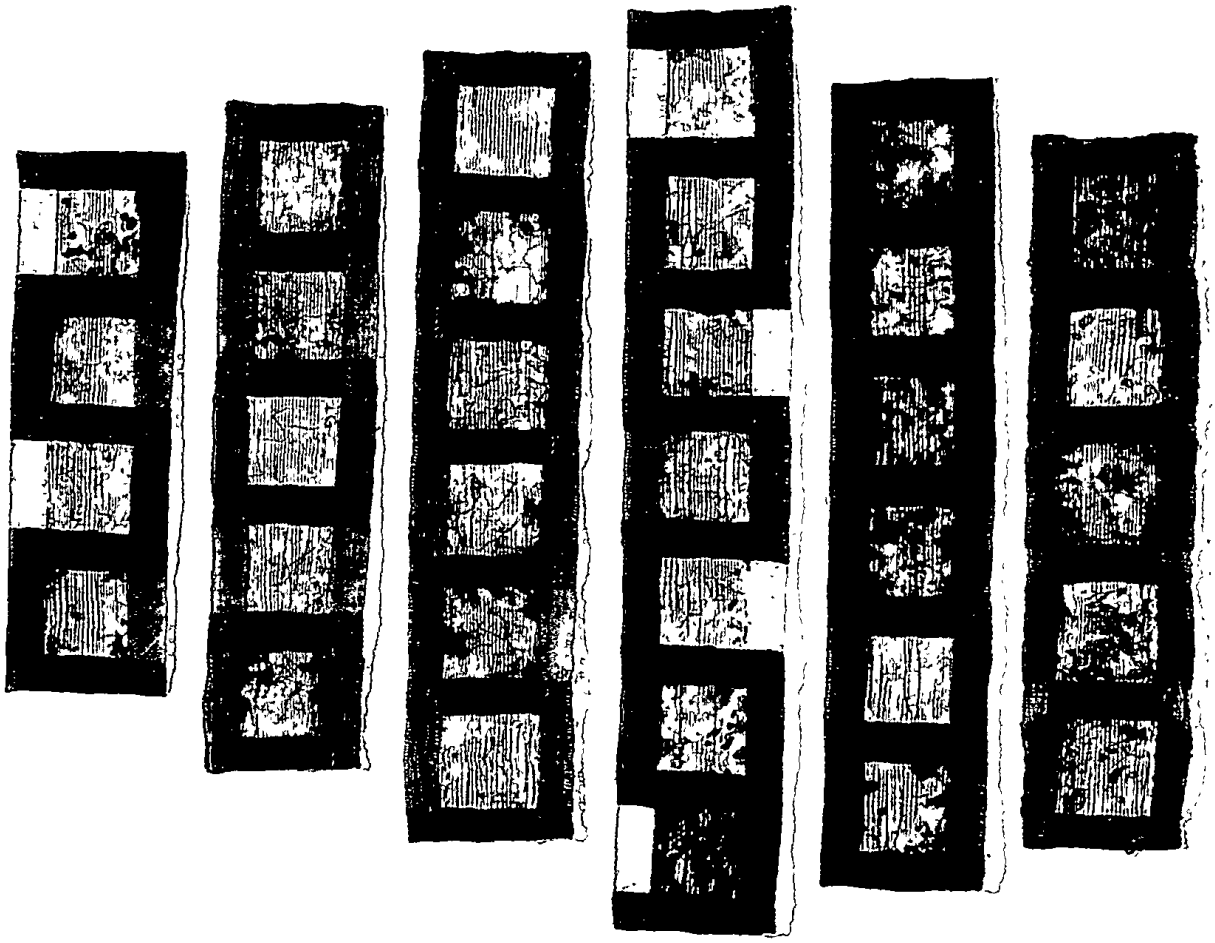
자연의 일부인 듯 보이는 제주도의 민가에서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소박함과 푸근함 때문일 것이다.

면과 면이 만나는 사각형의 형태로 자연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사각형태의 사이에 보이는 형태로 제주도의 여러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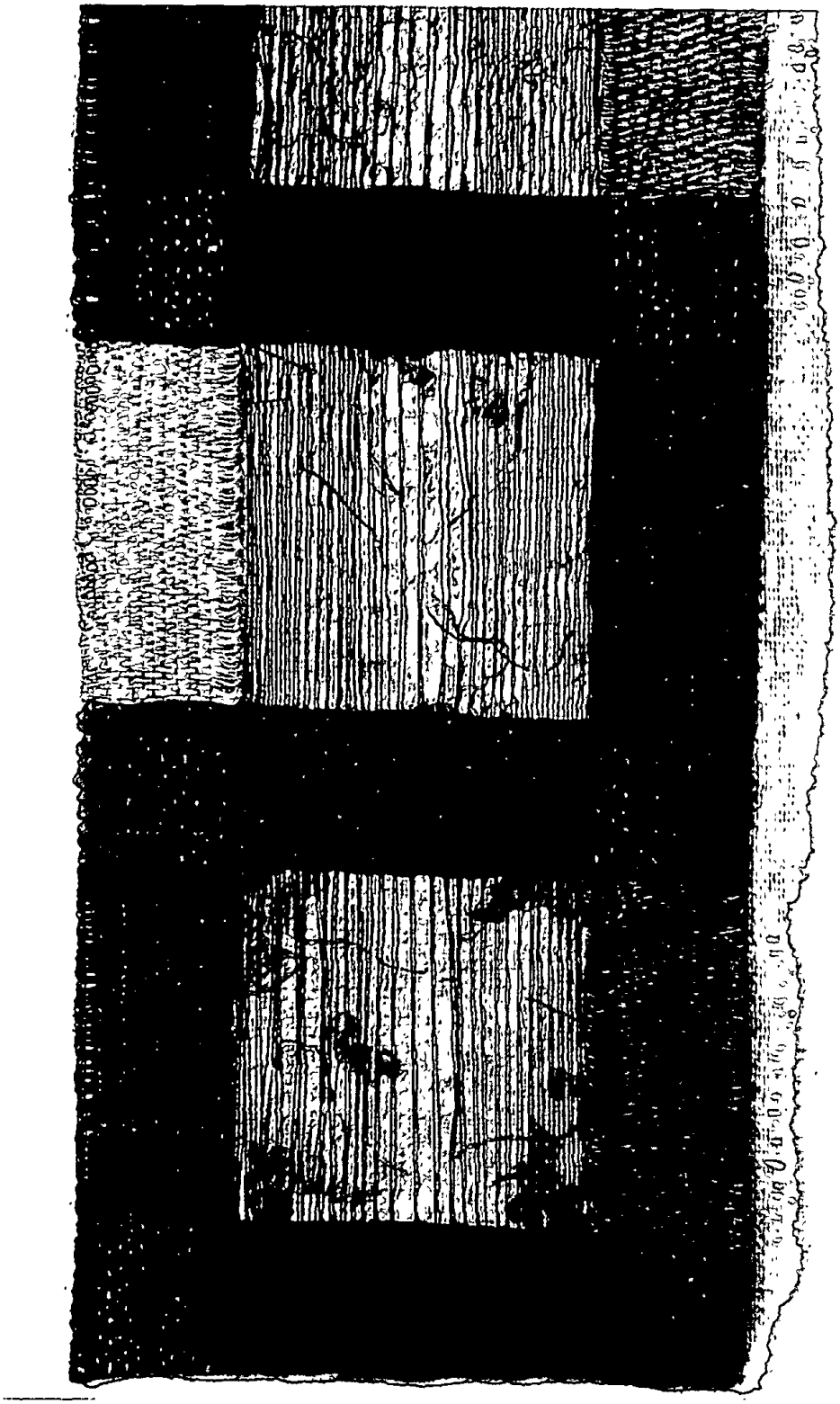
작품 Ⅰ에서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지붕에서 보여지는 격자형의 새끼줄의 형태가 사각형의 단위 형태로 배열되어 사각 형태의 반복에 의한 통일성을 표현하였다. 사각형은 자연의 특수성을 살린 민속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작품 제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형태에 자연스러운 반복과 변화가 생김으로써 조형성이 표현되었다. 시각적 흥미감을 더해 주기 위해 표면의 대비적 요소로 사용하고 여러가지 기법으로 촉각적 질감을 표현하여 촉각적인 질감의 대비로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제주도의 토양에서 보여지는 YR계열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제주도 전통민가에서 느껴지는 형태와 색채로 전통적 문화가 반영된 섬유 작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특성을 응용하여 형태, 질감, 색의 조형요소에 의해 사각 형태의 반복과 변화에 의한 통일성, 재료의 질감 대비에 의한 생동감, 그리고 색의 채도 대비에 의한 공간감으로 섬유 작품을 표현하였다.



작품 Ⅱ. 『공간』 (224×175㎝)



작품 II의 세부

작품Ⅱ. 『공간』

가. 크기: 224×175cm

나. 재료: 모사, 마사, 합성사, 닥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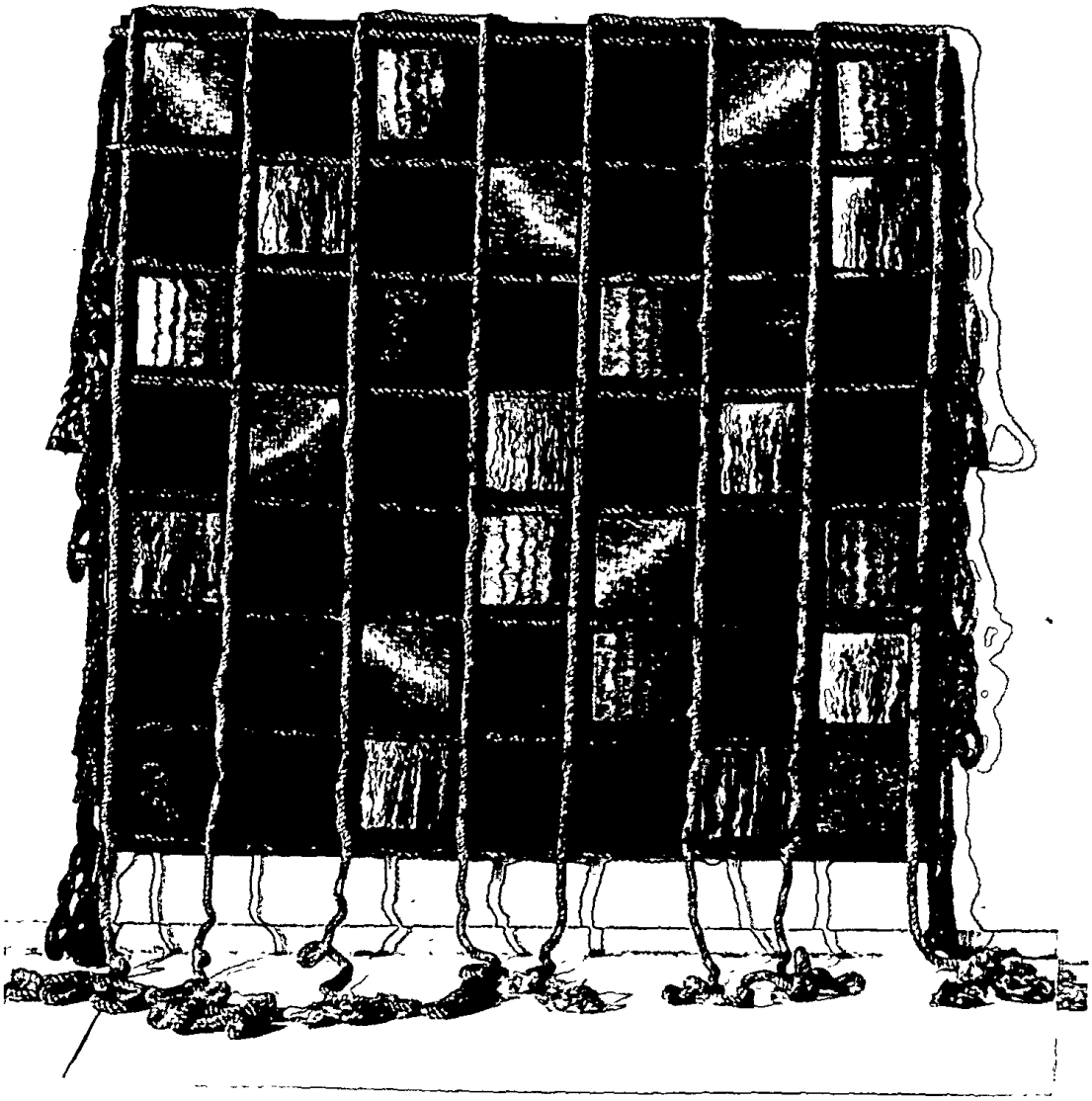
다. 기법: 평직, 종이작업

제주도 전통민가를 둘러싸고 있는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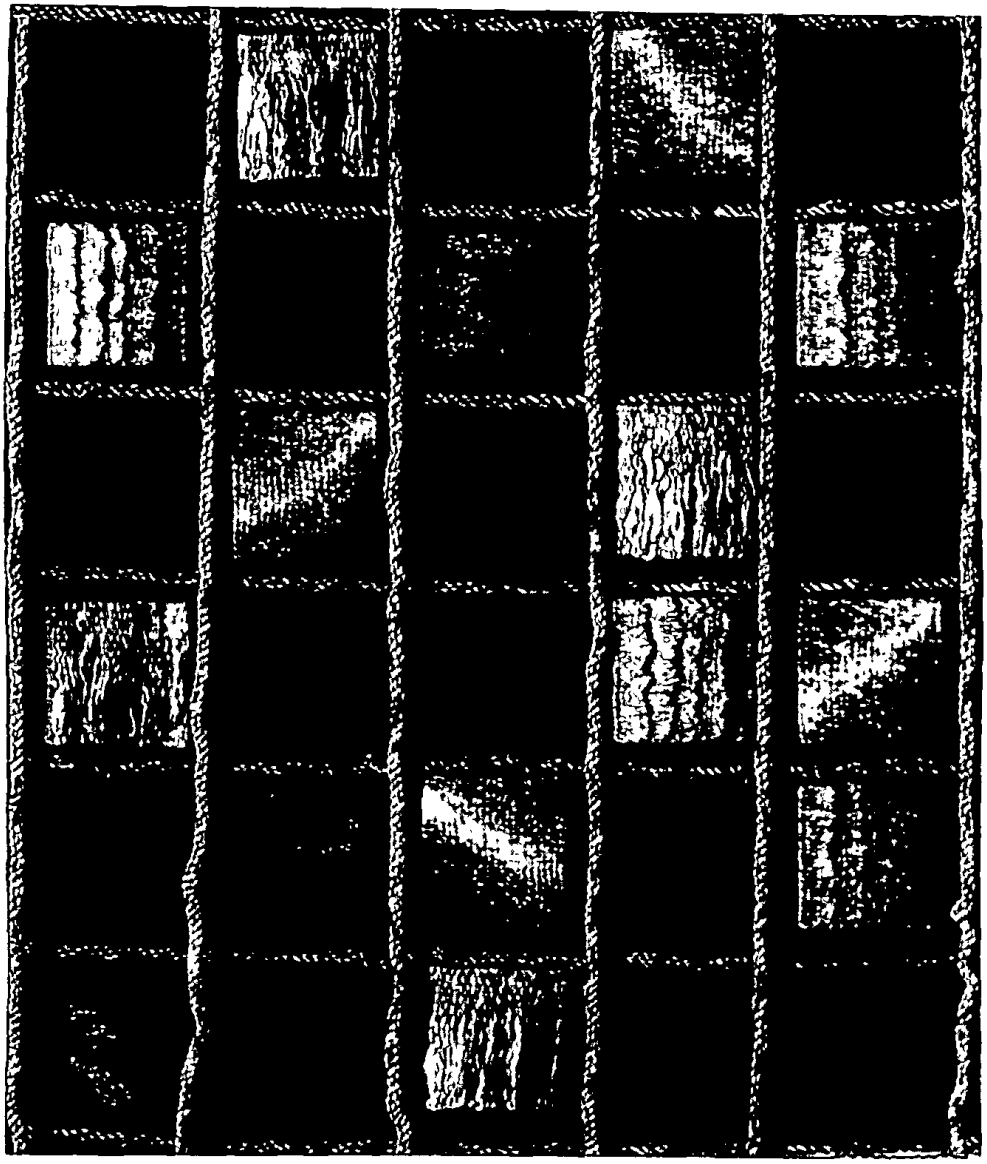
그 담들 사이사이에는 많은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사각형은 많은 삶의 이야기가 자연과 융합하게 하는 의식의 창이다. 자연의 이미지를 사각형의 내부 공간으로 끌어들여 자연과 동화되는 공간을 표현하였다.

작품 Ⅱ에서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담에서 보여지는 각지고 거친 현무암의 형태와 지붕에서 보여지는 격자형의 새끼줄의 형태를 사각형의 단위 형태로 배열하고 지붕에서 보여지는 밧줄의 느낌을 경사를 제직하지 않고 남김으로써 표현하였다. 사각형의 형태 그 사이사이에 보여지는 모티브는 전통민가의 외벽에서 보여지는 느낌을 나타낸 것으로 종이작업으로 표현하였다. 민가 지붕과 외벽에서 보여지는 YR계열의 색채와 현무암을 넣어서 만든 외벽과 담에서 느껴지는 무채색의 색채를 사용하였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특성을 응용하여 사각 형태의 반복과 변화에 의한 통일감과 색의 채도 대비에 의한 공간감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Ⅲ.『우리 것을 찾아서』(200×200㎝)



작품 Ⅲ의 세부

작품Ⅲ. 『우리 것을 찾아서』

가. 크기 : 200×2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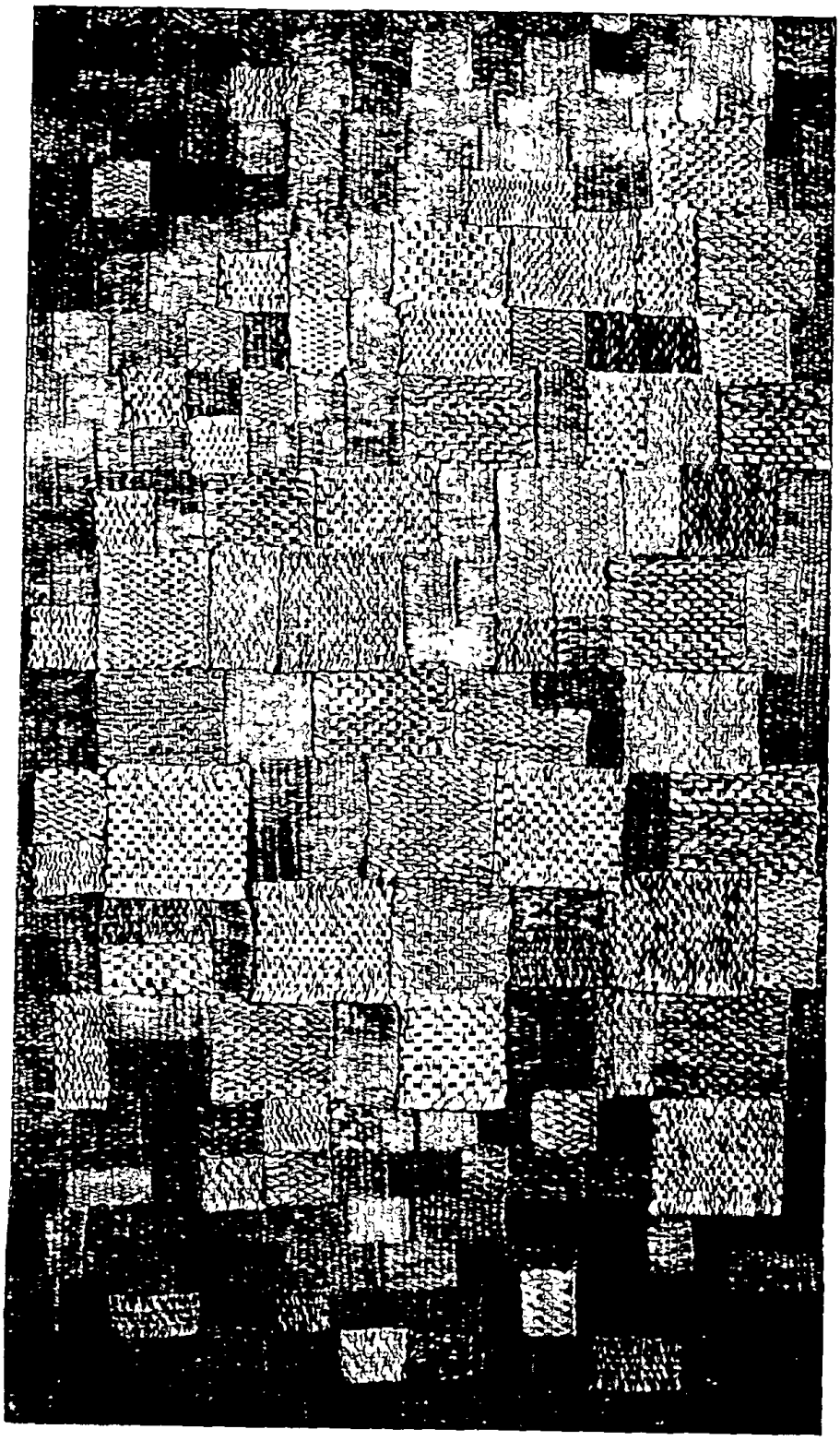
나. 재료 : 모사, 마사, 합성사, 면사

다. 기법 : 평직, 수막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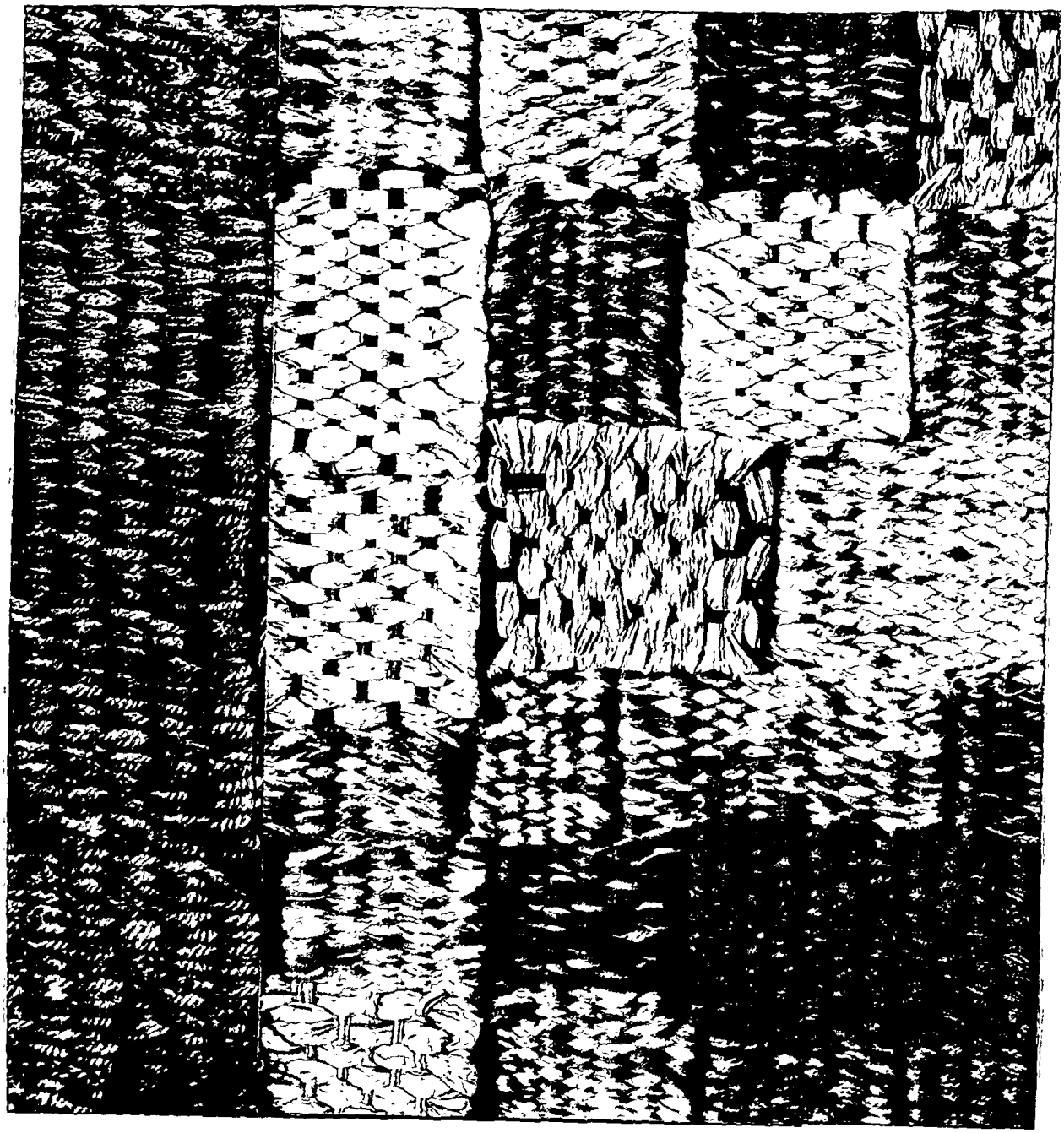
제주도 전통민가의 지붕..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굵은 줄을 그물처럼 떠서 격자꼴로 덮는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대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로 제주도 고유의 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지붕의 형태가 먼저 눈을 끄는 것은 다른 곳에는 없는 독특한 양식과 조화의 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 Ⅲ에서는 자연 공간에 있는 민가의 지붕을 평면으로 구성하여 제주도 전통민가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지붕에서 보여지는 사각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제주 특유의 감색으로 염색하고 부분 부분을 현무암 색상으로 페인트 한 밧줄을 엮기 형식으로 나열하여 반복과 변화에 의한 통일감을 표현하였다. 또, 밧줄 엮기를 한 사이사이에 민가의 재료에서 보여지는 초가, 밧줄, 돌의 질감 대비를 이용한 피스를 배치하여 생동감을 표현하였으며, 채도 대비에 의한 강조로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실을 섞어 직조함으로써 색의 시각적 혼합을 표현하였다. 작품의 재료는 염색이 용이한 면사로 된 밧줄과 색상의 혼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모사, 그리고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마사와 폴리에스터사, 모사, 밧줄를 사용하였다. 밧줄의 엮기 형식을 통한 전체 형태와 평면과 부조로 제작한 각 피스의 조합으로 설치하여 제주도 민가에서 보여지는 YR계열의 색채와 무채색으로 작품을 표현하였다.



작품 Ⅳ.『삶의 공간』(100×180㎝)



작품Ⅳ 의 세부

작품Ⅳ. 『삶의 공간』

가. 크기 : 100×180㎝

나. 재료 : 모사, 지사, 구리선

다. 기법 : 응용된 평직

멀리서 바라보는 성읍 민속 마을...

초가 사이사이에 또 다른 초가가 보인다. 겹겹이 보이는 민가는 우리 삶의 공간이다. 자연적인 멋이 있는 형태와 색채에서 우리 것을 느낀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특성을 응용하여 형태, 질감, 색의 조형요소에 의해 사각 형태의 반복과 변화에 의한 통일성, 재료의 질감 대비에 의한 생동감, 그리고 색의 채도 대비에 의한 공간감으로 섬유 작품을 표현하였다.

작품 Ⅳ에서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지붕에서 보여지는 격자형의 새끼줄의 형태를 사각형의 단위 형태로 배열하여 사각 형태의 반복에 의한 통일성과 변화에 의한 다양성을 지닌 통일감으로 표현하였다. 사각형의 형태는 형태적인 일관성이 있는 시각적 유사성을 갖는 통일성과 형태는 반복되더라도 크기는 달라지는 다양성을 지닌 통일성이다.

제주도 민가에서 보여지는 YR계열의 다양한 색채를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채도 대비에 의한 강조를 표현하고, 실을 섞어서 직조함으로써 색상 혼합에 의한 시각효과를 표현하였다. 제주도 민가에서 보여지는 부드러운 초가의 '새'와 단단한 돌, 탄력있는 밧줄의 이미지로 질감 대비를 표현하였다.

작품 Ⅴ.『자연의 향기』(120×175㎝)

작품 V의 세부

작품Ⅴ. 『자연의 향기 』

가. 크기: 120×175cm

나. 재료: 마사, 합성사, 사이잘삼, 구리선

다. 기법: 응용된 평직

동그마한 작은 집들이 자연과 동화되어 있다.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는 민가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변형한 듯 순수한 모습이다. 자연의 일부인 듯 보이는 민가에서 고유의 향수와 포근함을 느낀다. 오랜 세월 쌓인 지층처럼 자연 공간에 투영된 퇴적된 형태와 의식의 이미지는 내부 공간에서 탈피하여 향기처럼 떠돈다. 자연에서 느껴지는 향기는 우리 고유의 율동적인 그림자로 투영된다. 사각형은 퇴적된 자연과 의식의 공간을 나타내는 형태이다.

제주도 민가에서 보여지는 색상에 의해 채도 대비에 의한 강조로 공간감을 표현하였고 실을 섞어서 직조함으로써 색의 시각 효과를 표현하였다. 제주도 가옥은 천연재료를 사용하기에 천연재료 색채가 그대로 건축물에 반영되므로 제주도의 천연재료 색채의 사용으로 깊이감과 생동적 이미지의 색채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 민가에서 보여지는 부드러운 초가의 '새'와 각지고 거친 현무암의 이미지를 직물 질감의 대비를 갖는 생동감으로 표현하였다.

제주도 전통민가 형태에 의한 작품 제작은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를 반영하여 우리의 것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Ⅳ. 결 론

인간의 지각과정에서 색채는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은 수많은 색채 환경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깊은 영향을 받는다.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빛, 환경의 관계성을 연구하는 NCS는 색채의 내재적 속성을 명확하게 도식화하고 일관성 있게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색채의 정확한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색채는 그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므로 색채 활용에 적극적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고유한 자연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과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형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나라마다 문화에 따라 독특한 색채 문화가 형성되어 고유한 색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유색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대자연의 혜택을 순응하는 자세로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면서 순수한 미를 창출한 제주 고유의 민속 문화를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와 형태미를 재창출하려는 연구이다. 조형원리에 의해 색채와 형태의 조형성을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빛, 환경의 관계성을 중시하고 인접색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NCS를 근거로 색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역색은 자연발생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다른 칼라팔레트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의 고유한 색채를 찾는 일은 중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채를 NCS에 적용시켜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지형상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전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초가의 '새'와 지붕의 격자형의 새끼줄 형태, 자연재료로 만들어진 민가의 외벽, 민가를 둘러싸고 있는 담 등은 지형상의 특수성과 전통적 특징을 반영한 형태이다.

다섯째,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상과 형태로 전통 문화를 반영한 섬유작품을 표현하려는 본 연구로 제주도 특유의 색상에서 채도 대비에 의한 강조, 깊이감과 생동적 이미지의 색채 효과, 반복과 변화에 의한 통일감, 다양한 질감의 변화에 의한 생동감을 표현한다.

여섯째, 제주도 전통민가의 색상과 형태로 전통 문화를 반영한 섬유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제주도 특유의 색상에서 채도 대비에 의한 강조, 깊이감과 생동적 이미지의 색채 효과, 반복과 변화에 의한 통일감, 다양한 질감의 변화에 의한 생동감을 표현한다.

본 연구는 인간,. 빛, 환경의 관계성을 NCS로 제시하고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있는 제주도 전통민가의 특성을 고찰하여 색, 형태, 질감, 공간감의 조형원리에 의해 전통의 한국색과 형태가 반영한 섬유 작품을 표현하였다.

주관적인 색채 선호에 따른 색채의 적용에서 벗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색채디자인과 인간, 빛, 환경의 관계성 연구, 그리고 고유색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광언(1988). 『한국의 주거민속집』. 서울 : 민음사.

김영기(1994). 『한국인의 조형의식』. 서울 : 창지사.

김일진(1996). 『옛집에 담긴 생각』. 서울 : 향토.

류경수(1998).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서울 : 대원사.

박도양(1997). 『실용색채학』. 서울 : 반도출판사.

박요한(1989). 『색채조형』. 서울 : 미진사.

백기수(1979). 『미의 사색』. 서울 : 서울대출판부.

이경성(1986). 『공예통론』. 서울 : 수학사.

정시화(1981). 『현대 디자인 연구』. 서울 : 미진사.

주남철(1999). 『한국의 전통민가』. 서울 : 아르케.

최병상(1978). 『조형』. 서울 : 창미서관.

황의수(1989). 『조선 기와 빛깔있는 책들』. 서울 : 대원사.

하용득(1989). 『한국의 전통색과 조형심리』. 서울 : 명지.

박영순, 이현주(1998). 『색채와 디자인』. 서울 : 교문사.

박필제, 백숙자(1999). 『색채학 입문』. 서울 : 형설.

이문원, 손인석(1984). 『제주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섬일까』. 서울: 춘광.

한국실내디자인학회(편)(2000). 『실내건축을 위한 색채디자인』. 서울: 기문당.

Fujimoto, Akira (1991). 『랑크로의 색채디자인』, 김기환(역). 서울:국제.

Itten, Johannes (1985). 『색채의 예술』, 김수석(역). 서울 : 지구문화사.

Kuehni, Rolf G.(1997). *Color, N.Y.* John Wiley & Sons, Inc..

Porter, Tom and Byon Mikellides(1976). *Color for Architecture.* New York : Van Nostand reinhoid.

ABSTRACT

A Sudy of Fabrics Expression Through The Traditional Commons of Jeju Island

-concentrated on coloring and molding-

SHON, Sung-ah
Dept. of Fiber Ar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rof. Ad-jong PARK

Colors induce psychological response and affect human activities, and the humans affected by color effect within environment.

Natural Color System, which is human concentrated and studies relationship among human, light, and environment, is useful method in color design due to its relationship scrutiny of color and accurate application of color which has advantage in recognizing color in the aspect of phenomenology based on perceptive experience, schematizing intrinsic attribute of color, and indicating in consistency. Also, we need study of a local color through natural

environment and culture because color shows its culture of that region. Peculiar color culture has been developed in every country, which has its own color culture meeting its culture and natural environment. Therefore, the study of traditional color has extremely high value. Thus, we will now analyze the color and the form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traditional commoner's house, which contains the unique culture of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geographical distinction from volcanic activity.

Jeju Island people created their own pure beauty by adapting and living within nature and formed their own traditional culture. Cultural tradition of Jeju Island that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through Korean tradition can be represented as fiber art work through recognition of native culture reflecting traditional culture. Thus, followings are the results through above studies.

First, NCS that think highly of relationship among human, nature, environment and relationship of contiguity color presents method of color design and permit efficient practical use.

Second, It is important to find the traditional color of region. because color include other color palette according to social cultural factor.

Third, we can examine and apply relationship of color by converting natural color system and schematizing objective color of Jeju traditional house which have peculiar special quality in our country

Fourth, Jeju island tradition private house and lattice style of roof that has th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geography, outer wall of private house which is made from natural materials, private house that have peculiar traditional special quality with peculiarity on topography etc. reflects the forms of geographical and traditional characteristics.

Fifth, fiber work reflecting traditional culture can be expressed as culture heritage in color and form of Jeju tradition private house. Jeju Island characteristic color also express animation by unity subtraction of repeat and change, change of various texture emphasis by chroma subtraction, color effect of depth subtraction, and various changes in texture.

This research presents method of color design through natural color system theory to study human, light, relation of environment and express fiber work that tradition is reflected by modeling principle of sack, form, texture, because there is the purpose of special quality of Jeju Island tradition private house which is preserving peculiar culture heritage.

Color design and human, nature, research of environment, and research about traditional color which are based on escape in application of color by subjective color presence with science by natural color system have important value.